2020 도봉구 마을활동 이야기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

2020 도봉구 마을활동 이야기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20 도봉구 마을활동 이야기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목 차

이야기 하나 4

도봉구의 역사, 공간을 이야기하다.

50+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이 들려주는 생생한 도봉이야기

50+마을기록지원단 서병열

1. 도봉구 17대 명소 1편 6
2. 도봉구 17대 명소 2편 12
3. 방학 1동 총회 스케치 14
4. 방학 1동, 방아골 복지관 협약식 스케치 10
5. 놀이와 문화가 있는 사계광장 공연 16

50+마을기록지원단 우경림

6. 도봉구 하천 이야기 〈방학천〉 18
7. 도봉구 하천 이야기 〈우이천〉 20
8. 도봉구 하천 이야기 〈중랑천〉 24
9. 도봉구 전통시장 이야기 〈도깨비시장, 신창시장〉 26
10. 도봉구 전통시장 이야기 〈창동 골목시장, 백운시장〉 28

50+마을기록지원단 최선희

11. 창 1동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다 28
12. 창 1동의 생태환경을 알아보다 30
13. 창 1동의 공원과 주변 시설에 대해 알아보다 32
14. 창 1동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다 34
15. 창 1동의 미용실과 이발소에 대해 알아보다 36

50+마을기록지원단 정지실

16. 역사를 품고 있는 무수골을 알아보다 38
17.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안골과 새동네를 알아보다 40
18. 쇠죽골과 다락원을 알아보다 42
19. 여수학숙을 알아보다 44
20. 도봉구 우이동을 아시나요? 46

이야기 둘 48

센터 교육을 소개하다.

마을 아카데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교육 활동을 소개합니다

교육 참여자 인터뷰

50+마을기록지원단 서병열 ㅣ **김영동, 이선화** 56
50+마을기록지원단 우경림 ㅣ **인남영** 62
50+마을기록지원단 최선희 ㅣ **이현주, 박수진** 65
50+마을기록지원단 정지실 ㅣ **김진경, 이정연** 70

이야기 셋 76

도봉구 활동가들을 만나보다

50+마을기록지원단 서병열 ㅣ **김성숙, 이영기, 이윤재·서준수** 78
50+마을기록지원단 우경림 ㅣ **김미숙, 임호규, 민윤경, 임건순** 89
50+마을기록지원단 최선희 ㅣ **오은정, 한세영, 이상호, 김경숙** 97
50+마을기록지원단 정지실 ㅣ **우경림, 김희련, 강대훈, 김진경, 이정연** 109

이야기 넷 122

50+마을기록지원단 활동 소감 나눔

서병열, 우경림, 최선희, 정지실

부록 132

지역 내 마을일자리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이야기 하나

도봉구의 역사,
공간을 이야기하다.

50+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이 들려주는 생생한 도봉이야기



50+마을기록지원단 활동은
마을기록 활동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역량과 의지를 가진 50+세대의
열정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록가 선생님들과 써 내려가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우리 마을의 아름다움,
소중한 활동들을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 도봉이라는 마
을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현재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그 안에서 우리는 성찰과
실천을 통해 나 자신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
그리고 지역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야기
하나

도봉구 17대 명소 1편

마을기록가 **서 병 열**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서병열입니다. 도봉구는 지난 2007년 10대 명소를 선정했으나 서울열린극장이 철거되는 등 지역 환경이 달라져 2016년 명소를 새롭게 선정했다 하는데 지금부터 도봉구 17대명소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01

첫 번째 명소로는 도봉산과 둘레길로 북한산과 함께 북한산 국립공원에 포함되었으며 교통이 편리하고 산세가 수려하며 주능선상에는 최고봉인 자운봉을 비롯 만장봉, 선인봉, 주봉 등의 암봉과 서쪽으로 다섯 개의 암봉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오봉이 있는 최고의 산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창포원은 서울 강북의 끝자락인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세계 4대 꽃 중 하나로 꼽히는 붓꽃이 가득한 특수 식물원이자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약 1만 6천평에 붓 꽃원, 약용식물원, 습지원 등 12개 테마로 구분 조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이천과 벚꽃길로 우이천은 주요 봄꽃인 벚꽃과 개나리가 있으며 매년 봄에는 벚꽃 길을 걷는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2015년 올해의 서울시 봄꽃 길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도봉구 등축제가 8회나 열린 도봉구의 핵심천인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등축제가 열리지 못해 아쉽습니다.

네 번째는 둘리뮤지엄으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상 3층으로 이뤄졌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해주는 도슨트 해설을 통해



창포원

둘리 세상을 여행 할 수 있으며 1층 매직 어드벤처는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고 2층엔 코믹테마 타운이 있고, 3층은 드림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은행나무로 서울특별시 지정 보호수 제1호 및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3호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수령은 600년으로 서울특별시에서 최고령 그룹에 속하는 은행나무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산군묘로 조선시대 제10대 임금인 연산군과 왕비였던 거창군부인 신씨의 묘로 왕릉보다는 간소하나 조선시대 전기 능묘석물의 조형이 잘 남아다고 하네요.

일곱 번째는 무수골로 마을 이름은 1477년 세종의 9번째 아들 영해군의 묘가 조성되면서 유래되었는데요. 옛 명칭은 수철동이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무수동으로 바뀌었으며 무수골은 ‘무수울’이라고도합니다. 여름엔 지역내 주민들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계곡으로 도봉구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간송옛집

여덟 번째는 간송옛집으로 (간송은 전형필님의 호로)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맞서 우리의 문화재를 지킨 조선 제1의 수장가 전형필님의 옛집을 말합니다. 이 가옥은 등록문화재 521호로 지정 되어 있으며 2013년 간송미술문화재단과 도봉구가 퇴락한 본채와 부속건물주변 담장을 보수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춘곳으로 100여년이 된 전통한옥으로 건축학적 가치도 크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함석헌 기념관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권운동가,시인,역사가 함석헌옹을 기리기위해 그가 마지막 여생을 보냈던 도봉구 쌍문동 집을 보존 리모델링하여 건립한 작은 기념관으로 선생의 유품전지,발자취,동영상 상영등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1층은 세미나실,도서열람실,게스트룸등 주민 활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지만 알찬 의미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함석헌선생을 널리 알리고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즐길수 있는 뜻깊은 공간입니다.

이상으로 도봉구 17대 명소중 아홉곳을 알아보았습니다.

도봉구 17대 명소 2편

마을기록가 **서 병 열**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서병열입니다. 도봉구 17대 명소중 아홉개 명소 소개에 이어서 열 번째 명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열 번째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조선시대 ‘해등촌’이라 불리던 들판이었고, 당시 이곳에 아들과 노모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노모가 지병으로 사경을 헤매자, 아들이 노모를 살리고자 하는 정성에 도깨비가 감동하여 아들을 도깨비불에 이끌어 산속 깊숙히 들어가서 희귀한 약초를 구하여 노모를 살려내게 하였는데, 이후 도깨비를 감동시킨 아들의 효심 이야기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어 마을이 생겨나고, 장터가 형성되어 오늘날까지 이곳을 방학동 도깨비 시장’이라고 불리고 있다네요.

열한 번째 김수영 문학관은 시인 김수영을 기리기 위해 도봉구에서 설립한 문학관으로 2013년 11월 27일개관하였고 김수영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청소년들의 문예창작 의욕과 정신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전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수영 청소년 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재 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열두 번째 초안산공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조성된 근린공원으로 아파트 밀집지역인 초안산 아래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조깅, 산책,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장소로 이용되는 곳입니다.

열세 번째 원통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직할 전통사찰로 신라 경문왕3년 도선국사가 창건하였으며 본전인 원통보전은 1929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내

부에는 아미타 여래상과 관음보살상, 지장보살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원통사 약사전 아래 거북바위 윗면에는 '상공암이라는 바위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기도를 마치던 날 천상의 상공이 되어 옥황상제를 배알하는 꿈을 꾸었다는 전설과 관련된 바위 글씨입니다

열네 번째 천축사 673년 창건되었으며 고려 때 인도승려 지공이 나옹화상에게 이곳의 경관이 천축국의 영축산과 비슷하다고 한데서 유래되었다 합니다. 673년 창건 이후 조선시대인 1398년에 태조가 옛날 이곳에서 백일기도하던 것을 상기하여 절을 중창하고 천축사라는 사액을 내렸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봉 기적의 도서관은 도봉구는 어린이 문화 발전을 위해 2012년 2월 도봉 기적의도서관 추진계획을 세웠고 그해 3월 29일 책 읽는 사회 문화 재단과 '도봉 기적의도서관' 공동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 3월에 착공하여 2015년 7월 도봉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플랫폼61



열여섯 번째 양효공 안맹담과 정의공주 묘역 한글 창제의 숨은 꽃, 세종의 딸 정의공주와 부마인 양효공 안맹담 부부의 묘소입니다. 현재 이묘역 일대는 정의공주에게 내려진 사패지로 죽산안씨 집안의 묘역입니다. 정의공주가 세상을 떠난후 묘를 조성하면서 1477년에 정의공주 묘표를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마지막 열일곱 번째 창동플렛홈 61은 음악과 풍부한 컨텐츠들이 한 데 어우러진 트렌디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음악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강좌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 강좌 및 대중 예술을 접할수 있는 공간으로 남녀 노소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도봉에 이리 좋은곳이 많은데 밖으로만 눈을 돌린거 같아 도봉에 미안했고 다시 돌아본 도봉이 이리도 좋고 멋진곳이라는 것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방학 1동 총회를 스케치 하다

마을기록가 **서 병 열**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서병열입니다. 2020년 6월24일 오후 6시 코로나로 미뤄졌던 방학 1동 주민자치회 첫 정기회의가 개최되어 50플러스 마을기록지원단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키위해 방문했습니다.

03

사무실 입구에 들어서니 서울형 주민자치회 현판 및 도봉구청장과 1기주민자치회 민관협약서가 눈에 뜨이네요. 전체회의장 입구에 체온 측정과 더불어 위원들 명찰 그리고 참석자 명단 그리고 자료집이 가지런히 놓여있고 행사장에는 전체회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네요. 자치위원들이 하나둘씩 입장하고 자치위원 47명 중 25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고 직 간접적으로 참석 못한 위원들을 위해 SNS라이브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내외빈 인사후 전체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각 분과장들의 2021년 주민세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발표는 가나다순으로 돌봄 복지분과, 미디어방송분과, 문화예술분과, 자치운영분과, 환경분과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발표한 돌봄복지분과는 주민세로 방학 1동 서로나눔터 / 시참예산으로 뚝딱뚝딱! 우리동네 리틀에디슨과 동네어르신 배움터로 의제 제안을 했고

두 번째 발표는 미디어방송분과로 주민세로는 “방 1 그린푸드 브이로그” “함께해요! 소통방통 중랑천 걷기”로 시참예산으로는 “마을 방송 아카데미”를 안건으로 제안했습니다.







01
02

03

01. 방학 1동 총회 스케치
02. 방학 1동 총회 스케치
03. 방학 1동 총회 스케치

세 번째 발표는 문화예술분과로 주민세로는“공연과 함께하는 프리마켓”그리고 시참예산으로는 “주민모임 동아리 프로그램”으로 1기에 사업을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수업그레이드버전”과 미싱동아리 업그 레이드 버전인“생활 홈패션동아리”로 제안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자치회관 운영분과로 주민세로는“학둥지운영과 생활 방역프로그램” 시참예산으로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제안했다.

다섯 번째로는 방학 1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환경분과에서 마지막을 장식했는데요. 주민세 의제로는 “골목환경개선을 위한 쓰레기 베출지정대 설치”와 시참 의제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게시판 설치”로 안건을 발표해 참석한 많은 위원들께 큰 박수를 받았다. 각 분과장들의 의제발표가 성황리에 끝나고 주민자치회장의 주관으로 안건에 대해 위원들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에 들어갔는데. 찬반의 방법은 입장 시 출석위원들께 녹색 종이와 빨간색종이를 지급하여 찬성은 녹색, 반대는 빨간색 종이를 들어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출석위원 총 25명중 주민세는 25명 전원, 시참예산은 2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2021년 사업이 승인되었고 자치회장의 폐회선언으로 방학 1동 주민자치회는 성황리에 끝났다.

코로나로 대면 참석을 제한한 것이 아쉬웠으나 SNS 실시간 방송으로 참석한 분들이 많아 방학1동 주민자치회의 열기가 무척 뜨거움을 느꼈습니다.

이야기 하나

방학 1동, 방아골 복지관 협약식 스케치

마을기록가 **서 병 열**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서병열입니다. 방학1동 주민자치회와 방아골 종합사회복지관 협약식현장에 다녀왔습니다.

04

이웃이 서로 살피는 돌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의 힘으로 주민의 체감을 높이는 활동을 개발하여 방학1동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일상적 마을 활동 참여를 위한 구조를 마련하여 이웃을 서로 살피는 관계망 형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었고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는 복지관과 협업을 하면 효과가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자치회 임원들도 지원을 해주어 체결키로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대상으로는 1순위는 65세 이상 저소득 만성질환으로 거동불편자/ 2순위는 65세 미만 만성질환이 있는 1인 가구, 저소득층을 우선토록 하였으며 진행 순서는 욕구접수, 서포터즈 의뢰, 연결, 확인과 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운영방식은 함께 논의하여 진행, 수정 보완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복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돌봄서포터즈를 활성화하여 사각지대의 필요충족 상시 일상적 돌봄 관계망을 구성하고 돌봄 전문기관과 연계하고 좀더 체계적으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돌봄 서포터즈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방법은 온라인 가입신청서 작성 후, 카카오톡 방 초대(기본교육과정 수료 예정), 활동기간은 2020년 7월 중 시작으로 2020년 12월까지 지속가능하며 활동증빙은 자원봉사자가 신청서 작성 시, 활동시간이 누적되며 방학1동 주민자치회와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다다름공작소)을 주축으로 서

협약서





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방학1동주민센터등 *민과 관이 힘을 합쳐 취약한 어르신 및 저소득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게 바로 민관협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협약이 취약 계층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야기 하나

놀이와 문화가 있는 사계광장 공연

마을기록가 **서 병 열**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서병열입니다.

05

2020년 10월 16일

코로나로 무한정 연기되었던 방학 1동 주민세 사업의 일환인 “놀이와 이야기가 있는 사계광장”공연이 1단계로 완화된 거리두기로 드디어 첫 공연을 시작하였는데 뻔뻔한데이라는 타이틀이 인상 깊었고 간만에 보는 공연이라 설레었는데요. 공연 모습을 스케치를 해보면 상황 알림 현수막부착을 시작으로 팀별 리허설이 시작이 끝나고 사회자의 개회선언에 이어 방학1동 주민자치회장과 방학1동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은 총 4팀으로 장구1 팀과 통기타 3팀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팀 소개를 해보면

첫 번째팀 신바람 고고장구라는 팀은 요즘 대세인 트로트 곡에 다섯의 연주자가 신명나게 장구를 치는데 팀명대로 신바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다. 특히 두 번째 곡은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하여 코로나에 지친 주민들께 바치는 응원곡으로 많은분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후 3팀은 통기타팀으로 색깔 있는 공연팀 구성이라는 사회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통기타 3팀 중 첫 번째 팀인 세울림은 남성 3인조로 오로지 한 우물만 판 분들이 모여 만든 팀으로 한분은 교직에서 나머지 두 분은 정년퇴직하신 뚝심 있는 분들이었는데 남성의 멋을 한껏 펼친 멋진 연주와 노래로 주 관객층인 여성분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01
02



03

두 번째 팀 빅마미는 여성 3인조 전국구팀으로 많은 행사와 축제에 우선 초대되는 실력 있는 팀으로 메인보컬 유수현님은 TV에 수차례 출연한 프로 실력을 보여주었고 통기타 팀에게 흔치 않은 베이스가 추가되어 뛰어난 보컬에 풍성한 음악까지 선보여 많은 관객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마지막팀은 남성팀 여성팀에 이어 혼성듀엣팀으로 각자 활동하던 개인이 이번 공연을 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었다는 팀으로 실력이 어떨까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급조한 팀이 아니라 많은 연습을 한 꽤 오래전부터 팀 활동을 한팀처럼 호흡이 잘 맞았고 팝송을 2곡 함에도 귀에 많이 익은 곡을 하여 많은분들이 좋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접하는 문화공연이라 그런지 마지막 공연이 끝난후 많은분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아쉬워했고 다음주를 기약했습니다다. 앞으로 5회 정도 더 진행한다 하는데 다음공연이 벌써 기대가 됩니다.

01. 뻔뻔한데이 현수막
02. 신바람 고고장구 팀
03. 세울림 팀

이야기 하나

방학천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우 경 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우경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이 오늘따라 푸르고 무척 높아보이네요. 하늘도 푸루고 하천도 푸르네요
오늘은 푸른 방학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06

도봉구 방학동 도봉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노원구 상계동 상계대교 아래쪽에서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이 560m의 하천으로서, 중천, 복개내, 복개천이라고도 하는데요 도봉구의 방학동, 쌍문동, 창동을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인데요 방학천이라는 지명은 이 일대의 지명인 방학동에서 유래하였구요 방학이라는 지명은 이 지역의 지형이 학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시대의 자연 마을 가운데 하나였던 방학골에서 유래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지방 하천으로 지정되어 있는 방학천은 방학동의 도봉산 남사면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다가 상계교 아래의 창동에서 중랑천으로 합류하구요. 대체로 해발 고도 100m 내외의 산 사면을 흐르다가 연산군 묘를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완만한 평지로 흐릅니다. 산 사면이 비교적 급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류는 도봉산의 기반암인 화강암과 낮은 골짜기가 있지만, 중랑천과 합류하는 하류로 내려올수록 하천 연안에서는 하천 범람에 의한 충적층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천의 유로는 3.05㎞에 달하구요 하천의 상류부에는 사적 제362호로 지정된 연산군 묘 등이 있습니다. 하천의 북쪽은 방학동, 하천의 남쪽은 쌍문동과 창동과 접해 있어, 방학동을 쌍문동 및 창동과 나누는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동 원당 공원~중랑천 합류 지점에 이르는 2.1km구간에 대하여 생태 하천을 조



방학천

성하는 공사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하천의 일부 구간은 복개되었구요 2012년 7월 1일부터 방학 1동 우암 가든 빌라부터 중랑천 합류부 상계교 아래까지의 약 1.54㎞ 구간에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덕분에 도봉구 주민들은 방학천에서 중랑천, 한강까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천의 중류에는 발바닥 공원이 조성되어 있구요 발바닥 공원은 2002년 이전까지 무허가 판자촌으로 빼곡하던 방학천 일대에 나무를 심고 각종 동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조성한 곳으로, 도봉구의 명소 중 하나입니다.

우이천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우 경 림**

안녕하세요 “우리의삶 우리의도봉을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우경림입니다.
코로나에 모두 잘 계시지요?
환경이 파괴되는 이 시대에 자연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네요.

07

저는 일주일에 우이천을 서너번 걷기를 하는데요. 우이천에는 사계절이 계절마다 특징을 이루고 있어요. 봄에는 개나리 ,벚꽃 등이 장관입니다. 여의도 벚꽃축제 이상 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구요. 여름에는 각종 꽃들이 화려하게 만개를 한답니다. 외가리, 물오리 원앙과 잉어, 메기, 쏘가리 등 시골에서 볼 만한 풍경들이 있구요. 아이들이 물놀이와 어른들의 담소 장소로 인기입니다. 가을에는 푸른하늘과 억세와 갈대가 우리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개천이 얼어서 썰매를 타기도 하구요.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우이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이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서남쪽을 흐르는 하천으로 중랑천의 제1지류로 도봉구 우이동에서 발원하여 중랑천에 유입되는 하천이구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경성 10리 안에 동쪽은 대보동(大菩洞) · 수유현(水踰峴) · 우이천(牛耳川) · 상하벌리(上下伐里) · 장위송계교(長位松溪橋)에서 중량포(中梁浦)에 이르기까지 하천으로 한계를 삼으며…”라고 한 것으로 보아 당시 우이천을 한천의 주요 지류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동지도』에서는 한천의 지류로 우이천이 표기되어 있고, 『광여도』에는 한천의 남쪽에 이 하천이 표기되어있다고합니다. 하천 지명인 우이는 상류에 있는 도봉산







01
02

03

01. 우이천
02. 우이천
03. 우이천

의 한 봉우리가 소의 귀와 같은 모습이라고 해서 붙여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고 하구요 이 하천 부근에 위치한 우이동도 같은 이유에서 붙여진 이름이라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우이천이 좋아서 이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소귀봉 또는 우이봉 아래를 흐르는 하천이라는 데서 비롯되었구요 북한산과 도봉산을 연결하는 고개인 소귀 고개[牛耳嶺] 아래에서 흘러내리는 물길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우이천에 인접해서 쌍문동과 창동을 지나는 간선 도로의 명칭은 우이천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이천은 중랑천의 제1지류로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도봉산 기슭에서 발원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들어가며 우이천의 지류에는 덕성 여자 대학교 앞을 흐르는 대동천[현재 복개됨], 쌍한교 지점을 흐르는 가오천[현재 복개됨], 우이 제3교 근처를 흐르는 화계천[현재 복개됨] 등이 있습니다. 우이천은 총연장은 8.3km로, 중랑천의 지류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구요 도봉구와 강북구의 경계를 따라 흐르는 구간은 쌍문동에서 창동의 서울 신화 초등학교에 이르는 5.31km이며 쌍문동과 창동을 지나는 하천 주변에는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가진 주거 단지가 조성되었으며, 강북구와 함께 이 일대를 통과하는 3.9km 구간에 생태 하천을 조성하여 2011년에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하천 주변에는 폭 4m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 1.8km가 조성되어 있으며, 소규모 체육 시설 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중랑천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우 경 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우경림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중랑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8

도봉구에 작은하천들이 모여서 중랑천을 이루고 있는데요 가끔 중랑천에 나가보면 가슴이 뻥 뚤리는 기분이예요. 일단은 강폭이 넓어서 시원하구요 노원구와 도봉구를 이어주는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꿈이 자전거를 타고 한강까지 달려보는 것이 희망이었으나 아직도 이루지 못하고 있네요~

해마다 장미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랑천에 좀 더 알아볼까요? 중랑천은 경기도 양주시 불곡산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노원구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구요. 남쪽으로 계속 흘러 중랑구를 지나 군자교와 장안교를 거쳐 성동구 부근에서 청계천과 합류한 후 한강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중랑천은 도봉산과 북한산 산줄기가 동쪽으로 흘러내린 끝 지점에 자리하고 있는 하천으로, 하천 양안에는 과거에 자연 제방이 형성되었고 그 후면에는 습지가 조성 되었다고 합니다. 인공제방이 자연 제방을 대신하고 배수 펌프장을 설치함으로써 후면의 습지는 주거 지역으로 변화하였고 하천 주변에는 충적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랑천의 식물상은 총 37과 11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구요 주요 초본성 식물로는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큰뚝사초, 참새귀리, 돼지풀, 미국가막사리, 여뀌, 망초, 개망초 등이 있다습니다. 목본은 가중나무, 버드나무, 족제비싸리, 양버즘나무 등 총 7과 11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안으로 들어오면서 국가하천으로 등급이 바뀌는데요 국가하천으로



01



02

01. 중랑천

02. 중랑천

분류된 서울특별시 구간의 지류로 청계천 · 우이천 · 도봉천 · 면목천 · 방학천 등 13개가 있습니다

『대동방여전도』에서는 시에 속하는 중랑천을 두험천(豆驗川)으로, 태릉 부근을 속계, 그 하류를 중량포라 표시하였으며, 『대동지지』에서는 “일명 속계라고도 하는 송계천(松溪川)이 양주 남쪽 40리 부근에서 두험천(豆驗川) · 독두천의 두 개천과 합류하여 속계 · 중량포 · 전곶평(箭串坪) 등을 경유하여 한강(漢江)으로 유입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명칭은 이곳이 도봉산의 산줄기와 봉화산이 만나는 경계선으로 대나무의 잎과 가지가 바람에 휘날리는 것을 물결에 비유한 죽랑(竹浪)을 소리 나는 대로 쓰다 보니 가운데 물결이란 전혀 의미 없는 이름이 된 것이고, 또 이 하천이 새내 또는 샛강으로 불리게 된 것도 봉황이 새의 일종임을 의미하는 말이 되어 새가 있는 냇물이란 뜻이 되며, 도봉산 아래에서 서원천(書院川)이라고 불린 것도 새의 둥지가 있는 동산이라는 소원천(巢園川)의 발음이 변화한 것이라 합니다. 서원천이란 이름은『구한말지도』등에 보이며, 『지명총람』에 “중량포를 중랑개(中浪 -)로도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

도깨비 시장, 신창 시장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우 경 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우경림입니다.
오늘은 도봉구방학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을 소개하려합니다.

09

도깨비 시장은 규모가 제법 크구요 다양한 물건들을 파는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밑반찬용으로 오징어포를 사보았는데요 굉장히 신선하고 산지에서 온지 얼마 안되는 물건인 것 같았어요. 맛있게 만들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시골 장터에 온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소재지는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다길 29 (방학동 631-5)에 위치하고 있구요. 도깨비 시장은 할머니들의 노점으로 시작된 골목시장은 구청 단속반들에게 쫓기고 나타나기를 반복하면서 그 모습이 마치 도깨비와 같다고 하여 도깨비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지금은 250m 길이의 동서 2구역으로 나누어진 방학동 도깨비 시장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많은 주거 밀집지역에 자리하여 비교적 안정된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고합니다.

다음은 창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창시장을 소개합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있구요. 일주일에 서 너번 장을 보기도합니다. 맛집도 여러군데 있구요. 다양한 먹거리와 반찬들 과일가게 채소가게,생선가게등 다양한 품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시장 상인회에서는 특별세일 및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절기행사, 품목별 세일 ,고객 맞춤 서비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사용하는 분들에게 주차장도 완벽하게 준비되어있습니다. 내년에는 또한 고객지원 센터가



01



02

01. 신창시장 안쪽 모습
02. 신창시장 입구 모습

문을 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재지는 도봉구 창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71년에 형성된 시장으로서 신창시장은 2008년 상인회가 새롭게 출범한 후 하루 약 7000여 명의 손님이 찾아오는 인기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아케이드 보수, 버스 정류장 개설, 상인 정보화 교육 등 소비자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며 시장 역시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고합니다. 2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시행한 무료배송서비스는 구입점포나 배송센터에 요청하면 배송기사가 도봉구에 한정하여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구요 집에서도 배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야기 하나

창동 골목시장, 백운시장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우 경 림**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우경림입니다.
창동 골목시장[倉洞-市場]을 소개합니다.

지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8길 16에 위치하고 있구요
창동 골목시장은 1970년대 초반에 도봉구 창 3동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변천과정을 보면은 창동 골목시장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신창 시장과 함께 지역 유통망의 큰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1993년 초반에 인근[도봉구 창 5동]에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지하철역에서 멀어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는 등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005년에 도봉구로부터 ‘재래시장 환경 개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정비 사업을 시행한 뒤에 2006년 1월 27일에 현대화된 시설로 재개장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고객지원센터가 마련되었구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봉혁신센터에서하는 융합교실을 통하여 학생들과 함께 “시장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인들과 소통하고, 아이들이 가고싶은 시장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으로는 쌍문동 백운시장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쌍문동 백운시장은 도시재생의 희망지 구역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로 좋은 시너지를 기대해봅니다. 백운시장은 전통시장 인정 기본 요건인 규모 1천㎡ 이상, 점포 수 50개 이상, 상인·토지주·건축주 1/2 이상 동의로 전통시장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인정을 통해 백운시장은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배송서비스 지원, 고객지원센터 건립, 노출전선 정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골목경제를 살리는 일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봉구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1970년대 상인들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어 왔던 ‘쌍문1동 백운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등록됐다고 밝혔습니다

창동 골목시장 입구



이야기 하나

창 1동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최 선 희**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최선희입니다.
오늘은 창1동 마을의 유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창동은 조선시대에 양곡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창동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로 유만(流滿), 모랫말, 말미, 창골 등의 옛말로 불렸어요. 창동초등학교 옆에는 창동리(倉洞里)라고 쓴 이정표가 있는데, 그 옆에는 1991년 9월에 복원된 석조 이정표도 함께 있어요. 이 창동리 석조 이정표는 2017년 12월 21일에 '도봉구 향토문화제 제1호'로 지정되었어요.

창동리는 창동초등학교에서 방학천 앞까지, 유만리는 창동 주공1단지와 2단지 부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마산리는 창동 주공3단지와 4단지, 창3동 일대를 비롯해 노원구 월계동 일부 지역을 말해요. 말미는 산에다 말을 먹여서 붙여진 이름으로 마산동(馬山洞)이라 불렀고요. 모랫마을은 창1동과 월계동의 경계지역에 모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인데 자연 그대로의 이름인 거죠. 방죗굴은 방죽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방죽이 뭘까요? 혹시 둑방이라는 말은 들어봤을까요?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중랑천 일대에 펼쳐지는 서울 중랑 장미축제를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또 배라깃들은 수원(水源)이 적어 날씨가 가물 때 하늘에만 의존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창동 292번지와 300번지 일대였대요. 삼봉못(三峰못)은 연못에 삼각산의 봉우리가 비쳤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유만리(流滿里)는 큰 늪에 물이 가득하다고 해서 붙여졌는데, 한내(漢內)라는 이름으로도 불렀어요. 종자들은 유만이 앞에 있는 들판을 말해요.





01
02



03

01. 말미 마을 유래비
02. 창동 이정표
03. 창1동

7년 동안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종자가 된다고 해서 붙여졌어요. 좀 전에 창동이 양곡창고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 했는데요. 창골 역시 조선 시대에 창고가 있던 곳에서 유래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창동은 창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말미와 창골

양곡창고가 많아 창곡(창동의 유래가 된 마을)이라고도 불린 창골은 초안산 북쪽 야산 밑에 있던 품먹골, 가운데 마을, 건넛마을을 말해요. 이 세 마을은 크게 아랫마을과 윗마을로 나뉘기도 했어요.

창1동은 마을의 형상이 말의 모습을 닮았다는데요. 조선시대부터 말뫼(마산리)라 불러오다가 모음 변화로 말미가 되었어요. 말미마을은 지금의 주공3단지를 중심으로 한 창1동 전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창동의 다양한 이름 중에서 창1동에 해당하는 이름은 말미와 창골 뿐인 거죠. 현재 주공3단지 입구에는 1998년에 세운 말미마을 유래비가 있어요.

이렇게 옛 이름을 따라가 보니 창1동의 옛날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창동, 창1동의 옛 이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하나

창 1동의 생태환경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최 선 희**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최선희입니다.
오늘은 창1동에 있는 공원을 소개 하려고 해요

창1동은 도봉구에서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소문나있어요.
창1동에는 초안산 근린공원, 초안산생태공원, 초안산세대공감공원 이렇게 커다란 공원이 세 곳이나 있어요.

초안산 근린공원은 도봉구 창동과 노원구 월계동에 걸쳐 조성된 근린공원이에요.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창골잔디구장, 풋살경기장, 샤워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생태연못, 수생식물식재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아카시아, 잣나무, 느티나무, 산벚나무, 층층나무, 때죽나무, 연산홍 등의 나무들이 심어져있어요.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이 있어요. 숲속쉼터, 시설놀이장, 숲속학습장, 활동놀이장, 숲속도서관, 교구놀이장, 사면놀이대, 통나무균형대, 모래놀이터, 물놀이대 등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반딧불이 유아숲체험장 근처에는 토끼장이 있어요. 지난 여름에는 하얀 토끼도 있었는데 요새는 잿빛 토끼만 세 마리 있더라고요.

그리고... 초안산근린공원에는

도심 속 농작물 체험센터도 있어요. 농작물 체험장은 농작물과 반딧불이 인공증식 과정 등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는 농작물뿐만 아니라 꽃도 아주 많아요. 벼, 수수, 도라지, 오이, 더덕, 고구마, 토란, 땅콩, 토마토, 검정콩도 있고요. 시계꽃, 연꽃, 수련, 조랑박, 물수세미, 봉숭아, 천사의나팔꽃, 달개비, 나리꽃, 칸나, 장미 등등 다양한 꽃들도 볼 수 있어요. 체험장 안에는







01
02
03

정자도 있어 쉬어 갈 수도 있어요.

초안산 근린공원에는 또 들꽃향기원도 있어요. 들꽃향기원에는 초가정자, 전망데크, 휴게 데크 등이 설치되어서 들꽃향기원을 여유롭게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어요. 창골축구장 주차장 옆 잔디마당에는 2017년 10월 17일 개장한 도봉구 반려견 놀이터가 있어요. 형님견 아우견이 어울려서 놀 수 있지요.

초안산근린공원만 조금 소개했는데도 벌써 힐링 되는 기분이 들지 않나요?

다음으로 알아볼 공원은 초안산생태공원인데요. 이곳은 주민들의 자부심이 깊이 배어있는 곳이라 소개하고 싶어요.

원래 이곳은 배나무 과수원이었어요. 민간 업자가 골프연습장을 건립하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계획이 무산되었죠. 하마터면 골프연습장이 될 뻔했어요. 이곳은 주민들의 휴식공간, 산책공간, 주민축제, 공연장 등 다양한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이용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유람선실내놀이터 뚜뚜”가 설치됐어요.

초안산 생태공원에는 또 “느린우체통”이 있어요. 오늘 엽서를 보내면 1년 뒤에 나 받아볼 수 있어요. 최근에 인기가 많은 초안산목재문화체험장도 있네요.

초안산생태공원 끝 지점에서 언덕을 좀 더 올라가 보면 친환경나눔텃밭과 명품반송공원이 있어요. 반송공원은 어느 독림가의 기부로 조성되었는데요. 70 평생 키워온 반송을 기부했다니 참 멋진 분이네요.

혹시, “도로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초안산생태공원 앞 도로는 다이어트 공사가 진행되었어요. 도로다이어트가 돼서 차도는 좁아지고 인도가 아주 넓어졌어요. 가로수에 부딪히지 않고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어요. 다이어트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지금까지 창1동에 있는 공원과 주변 시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1. 창 1동 생태공원 사진
02. 초안산 근린공원
03. 초안산 목재문화 체험장

이야기 하나

창 1동의 공원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최 선 희**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최선희입니다. 오늘은 창1동 자원조사 세 번째로 "세대공감공원", "뚝딱뚝딱 목공놀이터" 와 "장미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3

먼저 1) 세대공감공원은 2013년 9월13일 창 1동 산 183번지, 주공4단지 405동 옆에 조성된 공원이에요.

공원이 조성되기 전에는 싱크대 공장 등이 밀집해 있었고 무단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었어요.

'세대공감 공원'은 상지(上池)와 하지(下池) 두 개의 연못으로 나뉘는데요. 공원 입구에는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세대공감공원 끝에는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2)뚝딱뚝딱 목공놀이터는 "모험놀이터"

어린이 스스로 놀이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이끌어 가는 뚝딱뚝딱 놀이터 1호가 있어요. 서울시 최초로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모험놀이터래요.

모험놀이터는 정해진 게 없이 계속 바뀌고 달라져 이를 통해 아이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3)창골마을 붕붕도서관

"붕붕", 이거는 무슨 소리일까요? 네, 맞아요, 버스가 움직이는 소리예요. 창1동에는 버스 도서관이 있어요. 창골마을 붕붕도서관은 주공 4단지 옆 초안산 숲속에 폐버스를 개조해 새롭게 꾸민 도서관이에요. '아진교통'에서 대형버스를 무상으로 기증해주었는데요. 여름에는 도서관에서 돗자리도 빌릴 수 있어요. 도서관 밖 숲속에 자리를 깔고 종일 책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숲속에 낡은 버스가 이색도서관으로 변신한 것을 보고 서울시나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많이 온다고 해요.

버스를 타고 책을 읽다 보니 어디선가 장미 향기가 나는 것 같지 않나요!

4) 장미원

창1동에는 장미공원이 있어요. 지난번에 소개한 반송공원 옆, 서울가든 아파트 옆에서 창동종합사회복지관 쪽으로 언덕길을 가다 보면 오른쪽에 장미 정원 있어요.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장미가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장미원에는 그네 벤치가 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장미원에 오면 그네에 앉아서 장미꽃을 보고 향기를 맡기도 해요.

이렇게 창1동에는 다양한 볼거리 놀 거리가 있네요. 지금까지 "세대공감공원", "뚝딱뚝딱 목공놀이터", "장미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01. 뚝딱뚝딱 목공놀이터
02. 장미원 사진
03. 붕붕도서관
04. 장미원 사진

01
02
03





04





이야기 하나

창 1동에 있는 기관들에 대해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최 선 희**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최선희입니다. (창1동 주민센터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도봉문화정보도서관 창동고등학교를 알아보다) 창1동 주민센터 02-2091-5118 / 팩스 02-2091-6292



창동종합사회복지관

먼저 창1동 주민센터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재 창1동 주민센터는 신축 중이고요. 새 청사는 지하2층 지상6층으로 건립될 예정이에요. 주민센터에 있던 작은도서관은 휴관 중이고요.

주민센터 임시청사는 제1청사와 제2청사로 나뉘어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1청사는 쌍문역 근처 양산부인과 건물 2층에 있어요. 1청사에서는 동 복지업무 총괄과 각종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제2청사는 서울 도봉구 도봉로110길 65 청마빌딩 4층에 있는데요 주로 민방위, 청소, 승용차마일리지 등 자치마을팀이 있어요.

창1동에는 25,765명의 주민이 살고 있어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가 3배 정도 많아요.

주민센터에는 간호사가 2명 상근하고 있고요. 30개의 통과 217개의 반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창1동의 직능단체로는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창골사랑부녀회, 자율방범대, 작은도서관,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동협의회, 도화지청소봉사단,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있어요.

다음으로는 지역 복지관에 대해 알아볼게요. 창1동에는 한 개의 복지관이 있는데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이에요. 창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창1~4동, 쌍문 1,3동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999년 5월에 개관했어요.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과 옥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수탁법인은 재단법인 여의도순복음총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020년 올해는 ‘탕탕탕 프로젝트’ 등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창1동에는 도봉구의 대표도서관인 도봉문화정보도서관이 있어요.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진 도서관은 도봉문화재단에서 도봉통합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도봉구 관내 모든 도서관이 통합 운영되어서 상호대차가 가능해요. 도서관 아래로 내려오다 보면 창동 119안전센터도 있어요

이밖에 창1동에는 한사랑유치원, 예랑유치원, 창일초등학교, 창일중학교, 창북중학교, 창동고등학교가 있어요. 창일중학교는 양궁부가 유명하고요, 창북중학교에는 신발장이 없다네요. 그래서 창북중학교 학생회는 매일 실내화를 놓고 오는 학생들을 위해 실내화를 대여해준대요.

도봉구의 명문 창동고등학교에는 과학중점학급이 있어요. 창동고등학교 등교 시간은 8시 30분 까지고, 조회는 8시 30분에서 8시 40분에 한 대요. 이 근방의 고등학교들보다 등교 시간이 늦은 편이어서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부러워한대요.

지금까지 창1동에 있는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야기 하나

창 1동의 미용실과 이발소에 대해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최 선 희**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최선희입니다. 벌써 마지막 이야기네요. 오늘은 창1동에 있는 미용실과 이발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15

저는 머리가 너무 잘 자라서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컷트를 하러 가는데요. 미용실에 자주 가다 보니 우리 동네에는 미용실에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동네 산책도 할 겸 동네에 미용실이 얼마나 있나 찾아다녀 봤어요.

먼저 창1동에서 2,800여 세대가 살고 있는 주공3단지에는 1)최미용실, 2) 헤어153가이드, 3)정수빈헤어가 있어요. 헤어153 가이드, 숫자가 들어가니 문가 특별한 사연이 있어 보였는데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별 뜻이 없다네요. 주공4단지에는 4) 꽃자리헤어가 있는데요. "당신이 앉은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란 의미로 헤어샵 이름이 꽃자리헤어! 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미용실은 거의 다 쌍문역 주변에 많았는데요. 30여 개의 크고 작은 미용실이 있었어요. 미용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볼까 해요.

5)제오헤어 쌍문점, 6)디자인차이, 7)헤어이즈 쌍문역점, 8) 봄봄, 9) S헤어, 10)유진미장원, 11) 오렌지헤어클럽 쌍문점, 12)머리&가위, 13)비비헤어 창동점, 14) 너네가찾던미용실, 15)유은헤어, 16) 살롱나민, 17) 헤라미용실, 18) 옻안타는천연염색 창동점, 19)연지헤어, 20) 윤미용실, (영어로는 구구 헤어 살롱이라는 구구 미용실이 있네요.) 21)Gugu Hair Salon 구구미용실, 22) 김쌤헤어, 23)윤주헤어샵, 24)손이예쁘다, 25)레드헤어 2호점, 26) 미&컬, 27)Jal Hair 잘헤어, 28)토모토모헤어 창동점, 29)우정머리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에 귀가 솔깃하셨나요? 저는 "우정머리방"하고 "잘 헤어" 인데요. 이렇게 미용실 이름을 적어보기 전에는 그냥 영어 Jal로, KAL기 할 때처럼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불러보니 "머리를 잘한다는" 뜻으로 "잘 헤어"라는 걸 알게 됐어요.이상은 미용실이었고요.

창1동에는 이발소도 있었어요.

이발소 하면 뭐가 떠오르실까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이것 아닐까요?

파랗고 빨간색 원형 간판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모습이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의 이발소가 창1동에는 네 곳이나 있어요. 30)낙원이발, 31)성원이발, 32) 미래이용원, 33) 현대이발.이죠.

어떠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모시고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마구 들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창1동에 있는 미용실과 이발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1
02





01. 미용실
02. 이발소

이야기 하나

역사를 품고 있는 무수골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정 지 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정지실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유수한 역사를 품고 있는 ‘무수골’입니다.

여러분은 무수골에 가보신적이 있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답사를 갔었는데요, 무수골은 원래 도봉산 보문능선과 우이남 능선 사이의 골짜기를 말한답니다. 여기서 흘러내리는 물줄기 끝자락에는 옛 부터 자리하고 있던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무수골’이라고 합니다. 1400년대 세종의 서자인 영해군을 비롯한 전주 이씨와 안동 김씨 등의 가문이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아왔다는 기록이 있다네요. 그래서 약 500년 넘게 마을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무수골’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영해군 묘 지석문에 ‘수철동’이란 지명이 기록되어 있는 점을 봤을 때 당시 이곳에 무쇠가 많아서 ‘무쇠골’이라 부르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지금의 무수골로 불렸고 또한 그 뜻도 변했다는 이야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무수골은 먼저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지는데요. 무수골의 입구 역할을 하는 아랫마을은 윗마을보다는 짧은 3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예로부터 안동 김씨 가문이 주로 거주해 왔으며 윗마을로 향하는 작은 고개에는 아직도 이들의 선조 묘소가 있답니다. 묘소 바로 옆으로는 얼핏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한 샘물터가 있는데, 이 또한 아랫마을의 300여년 역사와 함께한 것이라네요.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지만 마을 사람들은 과거의 유산을 지키고자 1970년대 샘물 앞에 기념 비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랫마을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자리한 윗마을 어귀에는 200년이 넘는 수령의 느티나무가 우뚝 솟아







01
02

03

01. 무수골
02. 무수골
03. 무수골

있습니다. 이 나무는 예로부터 마을의 당산나무로 이용되었고, 1981년에는 서울의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윗마을에는 500년의 깊은 역사가 배어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마을의 정겨운 옛 모습과 소중한 역사자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전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전엔 우마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나 계곡에서 수영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나시면 무수골 골짜기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오늘의 마을이야기 정지실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안골과 새동네를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정 지 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정지실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역사와 문화가 숨쉬는 ‘안골과 새동네’이야기입니다.

17

도봉산역에서 도봉산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새동네와 안골 마을은 과거에 도봉서원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서원마을’과 연관이 있습니다. 도봉서원은 조선 후기의 문신인 우암 송시열을 배향하는 등 많은 선현을 배출한 서원으로, 예로부터 이 인근에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자연스럽게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서원 내와 안골, 다락원이 대표적이었으며 이들을 현대에 들어와서 ‘서원마을’이라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정왕후 별서가 있던 마을인 현재의 광륜사 일대가 그 중심이었다고 전해집니다. 1960년대에는 이 일대에 유원지가 들어서면서 각종 무허가 시설과 식당으로 인해 혼잡해졌다가 1980년대 초, 이를 정화하기 위해 산 끝자락에 위치한 안골 마을 바로 옆으로 대지를 조성해 강제 이주시켰다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새동네’입니다. 당시 새동네에는 백여곳의 택지가 조성되었는데 주민들 대부분이 이를 높은 가격으로 되팔아 타지로 가버려서 현재 남아있는 옛 서원마을 주민은 극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2002년 문화관광부와 전국문화원 연합회가 추진한 ‘문화, 역사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유일하게 도봉산 서원마을이 선정되어 심층적인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옛 서원마을에 속했던 안골은 그만큼 깊은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위해 매년 음력 1월20일 열리는 마을의 공동제사인 ‘대감제’역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대감제의 대상이었던 이대감님은 안골에서 99칸 자리 집에 사셨다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아직도 그 이대감집의 자손들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시면 안골에 있는 음식점도 잘 찾아보시고 그 자손들도 만나보시면서 옛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떨까요? 기록가 정지실이었습니다.

01



02
03







04

01. 안골마을입구 대감제가 열렸던 은행나무와 재단
출처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02. 안골마을1

03. 안골마을2

04. 안골대감제 은행나무현재모습

이야기 하나

쇠죽골과 다락원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정 지 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정지실입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쇠죽골과 다락원’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마을들은 특히 산과 물이 있는 골짜기에서 만들어진 곳이 많아서 ‘무슨 무슨 골’이라는 마을 이름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봉구에는 우이천,해등천 등 많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초안산·북한산 등의 구릉이 낮은 산과 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마을이 이루어지기 좋은 입지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쇠죽골은 도봉구 쌍문1동에 있던 자연 마을로서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주막과 민가 약 20호가 있었는데요. 쇠죽골은 양주에서 동대문 시장에 소를 매매하러 가기 위해 올라온 소 장수들이 이곳에서 쇠죽을 쑤어 먹였던데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소여물골이라고도 불리워졌다네요. 한편 다락원은 조선 시대에 도봉구에 설치된 숙박 시설을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일반민의 여행 등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도로상에 설치된 일종의 숙박 시설이 있었는데요. 현재 도봉구 경내에는 다락원[누원]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터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역으로 향하는 주요 도로가 있었습니다. 또한 각 도로는 크기별로 등급을 정하였고, 주요 거점에는 역(驛)을 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원은 주로 역과 역 사이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았구요. 공용 여행에 숙박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하네요. 당시 원은 공무 출장과 더불어 수령에게는 숙식이 무상으로 제공되었으나 연회 등은 금지 되었다네요 다락원은 서울에서 함경도와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지역을 왕래하는 관원 및 상인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누원은 서울 동북부의 교통 요지로서 상업이 번성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특히 함경도와 경기도 북부로 이어지는 도로의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로 유입되는 어물(魚物)을 이 지역의 상인들이 독점하였고 큰 규모의 장시(場市)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도봉산역 환승 주차장 인근에는 다락원의 터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당시 누원점이 상업적으로 번성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별장이 배치될 정도로 중요한 곳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락원의 설치는 이 지역이 이미 교통의 요지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상의 요지였기 때문에 인근에는 큰 장시가 형성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상업적으로 번성했던 도봉지역을 상상해보니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을이야기 정지실이었습니다.

01
02





01. 쇠죽골 자리 쌍문1동 동익아파트주변

02. 쇠죽골자리 쌍문리 지계산 내시군묘 밑

여숙학숙을 알아보다

마을기록가 **정 지 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정지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동을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19

여러분은 ‘여수학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도 처음 보았던 건물인데요. 창2동에 박석고개가 시작되는 그루터기를 조금 지나 교회들을 만나고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서다 보면, 누렇고 바랜 ‘여수학숙’이라고. 빼꼼히 솟아있는 높다란 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래에 들어와서는 좀 낯선 단어이기도 하고 여수라고 하는 말이 궁금하기도 해서 당장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학숙’이라는 단어는 뭔가 학습을 하면서 잠을 자는 곳이라는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여수’라는 말에서는 운영하고 계신 분이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과 연관성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생각으로는 근대 초기에 사람들이 서양식 학교에 익숙지 않아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단체로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집에서 소일거리를 시키거나 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 곳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을 돌아 건물 앞을 지나다 보면 새파랗고 하늘색 찬란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건물이 등장해서 또한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최근에 도색을 했는지 페인트통이 여기저기 뒹구는 현대적인 모습은 정말이지 반전이더군요. 그 사이로 젊은 여학생들이 책을 끼고 담소를 하며 입구를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아 저기는 여수에 있는 학생들의 기숙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왜 대학건물도 없는 여기에 무슨 까닭으로 건물이 놓여있을까 하는 두 번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창동은 준공업 지역이라 과거에는 건물임





01
02

01. 여수학숙 건물
02. 여수학숙간판

대료가 비교적 저렴했었고, 용적률이 높아 건물을 높이 쌓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당시 상황이 어려운 서울에서 통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여수시에서 마련한 기숙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곳 이외에도 ‘강원 학숙’같은 기숙사도 보입니다. 예전 창2동 주변에는 이런 기숙사뿐만 아니라 큰 공장의 기숙사로 사용된 건물들도 한때 많이 밀집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구요. 지금은 모두 아파트 단지로 변했지만 말이에요. 때로는 이 ‘학숙’이라는 단어가 일제의 잔재로 여겨져서 한동안 쓰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창동에는 아직도 이런 건물들이 남아있네요. 여러분도 창2동 길을 지나시다가 푸르른 바다가 연상되고 여수풍경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 건물을 발견하셨다면 여수를 고향으로 둔 학생들의 기숙사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마을이야기 정지실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

도봉구 우이동을 아시나요?

마을기록가 **정 지 실**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를 기록하다”의 마을기록가 정지실입니다.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우이동이 도봉구에 속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지금 도봉구 쌍문동에 사시는 김희련 선생님은 우이동이 도봉구 관할구역이었을 그 이전부터 도봉구에서 태어나시고 지금까지 도 도봉구에 살고 계십니다. 그 시절에는 우이동이 아니라 우이리 였었구여. 1950년대 들어와서는 성북구 우이동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1973년부터는 도봉구 우이동으로 또 1995년부터는 비로소 강북구 우이동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같은 집에 사시면서 의도치 않게 관할 행정구역의 변천과정을 모두 겪으신 셈이 되는 거지요. 현재 선생님 댁은 두 번정도의 이전을 다시 거쳐 결국 쌍문동에 사시는 데요 당시는 수유동도 도봉구에 속한 적이 있어서 그 시절 그곳에 사셨던 선생님은 여전히 도봉구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 누가 이분을 도봉구 토박이라고 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참 그 경계라고 하는 게 무색해지는 경우인데요. 아무튼 선생님은 그런 이유로 마을 이름의 변천사를 한아름 안고 사시는 역사의 산 증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네요. 그리고 당시 북한산 및 우이동 부근에는 군부대가 많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 적산가옥을 짓고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의 외가댁은 그 적산가옥 앞에서 8대째를 사시면서 그 가옥을 관리해 주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 집 앞에는 작은 징검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로 만든 다리로 바뀌어 지고 이것이 홍



도봉구 우이동 계성교 위에서

수로 인해 떠내려간 다리는 콘크리트로 만든 돌다리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성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당시 계성리에는 개울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쌍문 근린공원에서 시작해서 쌍문1동에 있는 동익아파트 앞쪽이 바로 계성리 마을이었고 그 개울이 이곳을 지나 우이천으로 합류하였다고 하는데요. 계성교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면서 군부대가 정리되자 적산가옥은 개인에게 불하가 되고 나중에는 국가에서 이를 사들여 그곳이 지금은 지역 공원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파노라마가 지나가듯 한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에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시간에는 선생님의 쌍문동 시기가 계속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마을이야기 정지실이었습니다.

이야기 둘

센터 교육을 소개하다. 마을 아카데미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교육 활동을 소개합니다.

마을 아카데미 Ⅰ

센터 마을생태계지원단(마을지원활동가, 센터실무자)을 대상으로 마을자치생태계 조성사업 기본 이해에 대한 교육 실시

일시 : 2020년 6월 - 2020년 11월
내용 : 온라인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사회적경제 주민자치 기본 이해 교육 등

마을 아카데미 Ⅱ

도봉구 내 주민, 활동가, 주민 리더,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일시 : 2020년 8월 ~ 2020년 9월
내용 : 홍보물 제작 교육, 기후변화, 젠더감수성, 홍보 아카이브, 작은 연구 교육 등

마을 아카데미 Ⅲ

마을공동체 및 주민자치 분야 종사자, 주민 리더들을 대상으로 지역 및 조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과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실시

일시 : 2020년 7월
내용 :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운영

마을 아카데미Ⅳ

다년차 마을 활동 경험을 가진 주민모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워크숍 및 교육 운영

일시 : 2020년 10월
내용 : 사업 및 분야별 의제 발굴 워크숍 운영

마을 아카데미 Ⅲ 교육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마을 아카데미 Ⅲ 교육은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으로 도봉구 내 다양한 활동가, 주민 리더, 주민, 중간지원조직 실무자, 도봉구 9개 동 주민자치회 간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Ⅲ 교육은 퍼실리테이션의 개념, 역할과 태도 등 기본 이해부터 시작하여, 회의 및 워크숍을 기획·운영하고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발산시키고 취합하는 등의 촉진자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이 과정에서 50+마을기록지원단은 교육에 같이 참여하며 참여자들이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실제 현장, 삶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지를 밀착하여 취재하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 즐겁고도 의미있었던 과정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교육 일정

일정	구분	세부내용
1일차(7. 16. 목) 10:00 ~ 12:00 13:00 ~ 16:00	Ⅰ. 퍼실리테이션 개요	· 퍼실리테이션의 개념 · 퍼실리테이터의 역할과 태도 · 발산 및 수렴 과정(Diamond Model) · 아이디어 발산 기법 실습
2일차(7. 23. 목) 10:00 ~ 12:00 13:00 ~ 16:00	Ⅱ. 퍼실리테이션 5단계 (EISCO 프로세스) Ⅱ. 퍼실리테이션 5단계 (EISCO 프로세스)	· 공감단계(E): 아이스브레이킹 등 · 정보공유기법(I): 장터, ADI기법 등 · 해결안 개발단계(S): 카드 스토밍, 합의형성 워크숍, 거꾸로 아이디어법 등
3일차(7. 24. 금) 10:00 ~ 12:00 13:00 ~ 16:00		· 실행안 결정 단계(C): 다중투표, Pay-off 매트릭스 등 · 실행 계획 수립단계(O)
4일차(7. 30. 목) 10:00 ~ 12:00 13:00 ~ 16:00	Ⅲ. 퍼실리테이터 소통스킬 Ⅳ. 회의설계	· 커뮤니케이션스킬, 질문스킬, 토론기법 · 회의 설계 방법(3P 분석 등)
5일차(7. 31. 금) 10:00 ~ 12:00 13:00 ~ 15:00	Ⅴ. 종합 실습 (회의설계 및 실습)	· 모의회의 설계 · 회의 진행 및 피드백 · 수료식

교육 내용

1일차

1일차 교육에서는 퍼실리테이션에 대한 개념, 역할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아이디어 발산 및 수렴 과정에 대한 기법, 운용 방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죠.

<퍼실리테이션이란? : 그룹의 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활동 / 적용 영역: 의제 선정, 문제해결, 아이디어 도출, 사업계획 수립, 전략수립, 비전 수립 및 공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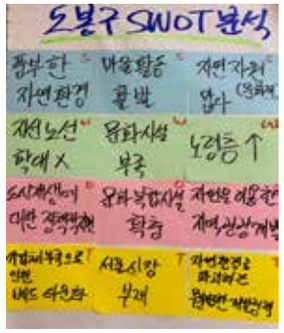
먼저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참여자들간 상호 소개하는 시간을 별 그리기 기법을 활용해서 진행했습니다. 오늘 나의 컨디션, 교육에서 얻어가



고자 하는 것 등을 적은 후에 모둠별로 공유하는 활동이었어요.

모둠 구성 또한 기법을 활용하여 무작위로 구성을 하였답니다. 서로의 소개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발산 기법과 실습을 진행해 보았는데요. 브레인 스토밍 기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였어요.

1일차 교육이 끝난 후 참여자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느 참여자분께서는 '이러한 교육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다. 너무 재밌고 얼른 잘 배워서 현장 및 생활 속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고 전해주셨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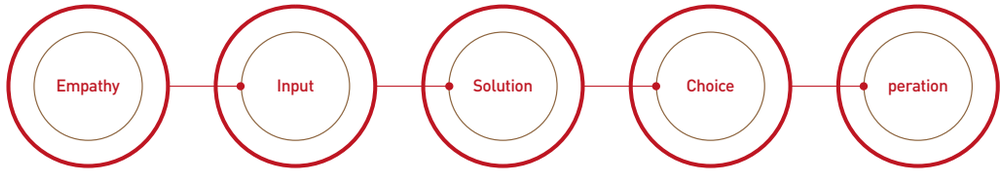
2, 3 일차

열정이 넘쳤던 1일차 교육이 지나고 2일차, 3일차 교육에서는 퍼실리테이션의 5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공감단계부터 실행 계획 수립단계까지 다양하고 유익한 내용들로 구성되었죠.

먼저 공감단계로 회의 진행 시 참석자들의 긴장을 풀고 서로를 알아가게 하는 활동(아이스 브레이킹)을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내용 중 가짜를 찾는 '진진가' 기법, 파트너 인터뷰 기법 등을 배우고 실습해보았습니다.

이어서는 회의 진행 시 참석자들간의 의견을 확인하여 동의하는 부분(A),

퍼실리테이션 5단계 프로세스: EISCO 프로세스



공감하기
· 주제/사람 공감
· 논의를 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의 공감, 수립함. 참석자에 대한 공감을 세부적 이끌어 내는 단계

정보 확인
· 정보 공유 및 확인
· 주제와 관련하여 참석자들이 각자 알고 있는 정보를 모으고 확인하는 단계

아이디어 개발
· 해결방안 발굴 및 보완
· 원인별 다양한 해결방안을 도출함 가능한 전략 및 처방을 발굴함

실행안 결정
· 실행안 결정
· 개발한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어떠한 방안을 실행할 것인지를 결정함

실행 계획
· 실행계획 수립
· 실행을 위한 상세 실행계획을 수립함. 실행의 세부적 단계를 계획함

동의하지 않는 부분(D),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I)을 확인하는 작업인 정보 공유 과정(ADI 기법)과 정보 공유 과정을 기반으로 실제 워크숍(회의)을 설계해보는 실습, 도봉구를 주제로 SWOT기법(강점, 약점, 기회, 위협 찾아보기)을 활용해 각각의 내용을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해보았습니다.

2일차 교육이 끝난 후에도 참여자분들과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이러한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막막하기만 했었는데 점차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나니 자신감이 생긴다. 얼른 실생활에서 적용해보고 싶다'라고 전해주셨답니다.

교육에 참여하신 또 다른 분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너무 유익하고, 실제 지역이나 마을 활동을 할 때 여러 회의가 참 어렵고 지루하기만 했었는데 얼른 이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해보고 싶다'라고도 이야기 해주셨네요.

벌써 교육의 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럼 마지막 주인 4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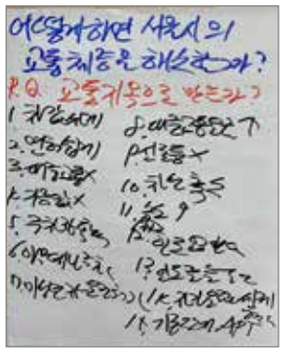
5일차 교육에서는 무엇을 배웠는지 알아볼까요?

4일차

4일차 교육에서는 퍼실리테이터 소통스킬(커뮤니케이션 스킬, 질문 스킬, 토론 기법)과 실행안 결정 단계에서 필요한 여러 기법 등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평가를 구분하는 사실과 평가의 구분 소통스킬,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고 확인하는 작업인 미러링 스킬(경청의 5단계 사진 삽입) 등을 배우고 실습해 보았습니다.
<미러링의 의미: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다시 말하는 것(재구술), 발언 내용이 모호하거나, 길어서 핵심을 파악하기 어려울 때 유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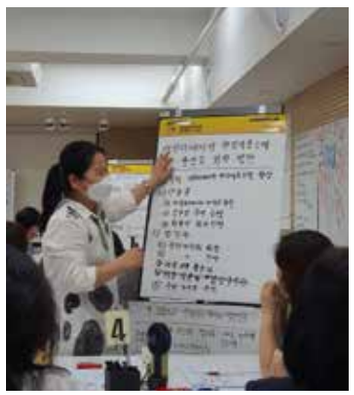
5일차

마지막인 5일차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뤘을까요?
지금까지 배운 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주제를 가지고 회의, 워크숍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하고 진행해보는 실습을 진행해보았습니다. 교육 참여자분들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본인 삶에서 혹은 현장에서 갖고 있던 고민들을 주제로 함께 나누고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도출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총 24시간의 교육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에는 그간 함께했던 참여자들이 직접 서로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더욱이 교육이 끝난 후 활동 영역별로 추후 학습모임까지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이 교육에서 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자기주도적인 실습과정을 마련하여 교육이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습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교육이 마무리 된 후 참여자분들이 여러 소감을 전해주셨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정말 재밌었어요, 추후에 심화교육을 진행한다면 무조건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어요, 나의 현장, 생활속에서도 꼭!꼭! 적용해서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고 싶네요'라고 전해주셨답니다.

이렇게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총 24시간의 모든 교육이 끝났는데요



50+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들은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교육과정에서 참여자들에게 좀 더 밀착하여 교육 전, 중, 후로 인터뷰를 진행하셨답니다. 교육을 통해 나의 삶터, 현장에서 어떠한 변화지점이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함께 알아보실까요?

마을 아카데미 III 교육 교육 참여자 인터뷰

김영동 코디네이터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서 병 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동 코디네이터입니다.

사업명이 다소 생소한데요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인가요?

같이살림 프로젝트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생활문제를 입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모임을 만들 수 있게 돕고, 나아가 그 모임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현재 저는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하게끔 돕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과 커뮤니케이션 하는게 매우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 의사소통, 의견들을 조율하는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도봉구에 이사온 지 약 1년 정도 되었어요. 저는 도봉구에서 마을 활동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도봉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기대감에 대한 충족은 하셨는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또한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처음에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매개로 만나 이야기를 하다보니 훨씬 빠르게 친해지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다양한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신것 같아 너무 좋았아요. 예전에도 퍼실리테이터 관련 교육을 몇 번 받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사례 등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예전에 다른 교육을 받았을 때는 하루 정도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번에는 5일 동안 시간과 내용을 꽉 채운 교육이었기 때문에 알차게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회의 진행시 어려웠던 점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의 대립이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그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교육으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치가 만약에 65 정도였으면 이번 교육을 통해 조금은 더 많이, 한 90 정도로 능력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요. 기존에 배웠던 것의 복습 과정과 예습 과정이 연결되어 제 능력도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기 전과 후의 변화가 있을지?

예전 제가 받았었던, 잊혀가던 퍼실리테이터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지금 저의 현장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 해요. 현재 제가 퍼실리테이터 교육에서 배운 내용을 활용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요. 잘만 활용한다면 정말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실습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강사님이 코칭해주셔서 너무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이 짧다보니 많은 내용에 대한 실습을 진행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요. 교육의 시간을 조금 더 늘리고 실습 과정을 자세하게 가져갔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을 받고 난 후 현장에서 활용을 좀 해보셨나요?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같이살림 프로젝트에서 주민분들과 이야기 할 때, 의견을 조율할 때 퍼실리테이터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참여하신 분들 모두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구요.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크게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매번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으러 가는 시간은 소풍 가는 느낌이었어요. 간식들도 있고 그러면서 의미 있는 것들도 배우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활동가분들도 만날 수 있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실제로 강사님이 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마무리하실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즐겁고 유익했던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네요.

마을 아카데미 III 교육 교육 참여자 인터뷰

이선화 활동가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서 병 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독서 동아리, 공모 사업 등을 하고 있는 활동가 이선화라고 합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평소 공모사업 수행,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의사표현과 의견 조율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량강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조직은 사람들이 모이고 참여하여야 유지가 되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 이런 점이 강화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퍼실리테이션 개념과 적용 영역이 기업, 관공서, 마을 회의 등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가정에서 외식 메뉴를 정할 때도 적용해본다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념을 배운 후에는 실습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개념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요. 항상 실습을 마치고 나면 내 이야기를 충분히 잘 전달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곤 했죠.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실습도 해보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회의 진행을 하려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눈을 맞추고 주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의견들을 모으고 탐구하고, 끝을 맺어야 하는데요. 이 중 저는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실습이었지만 진행자의 입장으로 주제에 대해 좀 더 참여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이 부담으로 다가왔는지 그 점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퍼실리테이션 교육을 받다보니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았어요.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 듯 보였고, 독서 토론에서도 충분히 적용해볼 수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독서 토론할 때 퍼실리테이션을 통해 주제 선정을 하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좀 더 밀도 있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 촉진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어떤 도움이 될지 등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제 현장과 삶에서 의사소통, 의사결정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요.

교육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퍼실리테이션 5단계 프로세스 중 3단계인 해결안 개발단계 중 <무작위 단어법>이 인상 깊었어요. 주제와 무관한 단어를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방법인데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좋은 방법을 왜 이제 알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항상 토론이나 무엇을 기획할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이었거든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한다면 문제 해결이나 창의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과 해봐도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교육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전체적인 교육 시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 교육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추후 보수·심화 과정을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속적으로 교육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고 또 수정하는 절차를 겪다 보면 제 역량도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을 배우셨는데 회의 기획부터 진행까지 운영할 수 있으실까요?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구상을 많이 해봤는데요. 막상 실전에 임하면 당황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이론대로,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많이 부딪혀보고 경험을 쌓아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고요. 제 삶이나 현장에서 매우 필요한 역량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강의를 받은 만큼 배움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 삶, 또는 현장 등 여기저기서 배운 내용을 활용해보려고 합니다. 경험을 많이 쌓은 후에는 현장에서 멋진 퍼실리테이터로 만나뵙겠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교육 교육 참여자 인터뷰

인남영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우경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남영 입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지금 현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보니 주민들과 많이 만나야 하고 다양한 회의나 모임을 운영, 참여해야 하니까 퍼실리테이터와 관련된 역량이 크게 필요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다양한 회의, 모임 속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조율하는 상황이 매우 많은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매끄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 내용을 배우고 싶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실질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 실습과정을 통해 회의를 기획하고 운영을 해보니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 알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이 된 것 같아 매우 만족합니다. 여러 교육을 들었을 때 '아, 이게 가능할까?, 실제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게 하는 많은 교육이 있었는데요. 이번 퍼실리테이터 교육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정말 유익했던 교육이었습니다.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실습도 해보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회의나 모임을 진행할 때 처음에 참여자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하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소통 관련해서 교감이 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기법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가 저의 고민 지점이기도 했고요. 또한, 각 회의나 모임마다 주제가 다르고 분위기 등이 다른데 어떤 식으로 해당 회의에 적합하게 기획하고 운영할지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건 역시 경험을 많이 쌓는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교육을 받기 전에도 모임이나 회의에 간단하게 참여하여 조율하거나 하는 등의 역할을 해본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정말 간단한 기법들 위주로 진행을 했었고 이 기법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어떤 의도를 갖고 활용하는 것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생각했던 결과물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요. 이번 교육을 받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법을, 어떤식으로 회의를 구성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하니 결과물도 의도에 맞게 나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가장 많이 긍정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교육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교육 내용 중에서 거꾸로 아이디어 개발 기법이 있었어요. 해결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 역질문으로 해결안을 생각해보는 기법인데요. 결과물도 신기할 정도로 잘 나오면서 재미도 있어서 가장 흥미가 있었던 기법이었어요. 또한, 현장에서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건데?" 등의 질문이라 이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퍼실리테이터가 가져야 할 중요한 소양은 무엇일까요?

퍼실리테이터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이고 자료에 기반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판단력, 객관성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고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성을 갖고 역할을 맡아야 참여자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고 결과물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또한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그동안 저는 무슨 문제나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간단하게 이야기로 내용을 풀면서 해결을 하곤 했었는데요, 이번 교육을 통해 많은 기법들을 배웠고 위의 부분들을 해결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교육 한번 들었다고 전문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을 듣고 계속해서 경험을 쌓아가다 보면 추후에는 지역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변화를 촉진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현주 도봉 1동 주민자치회 간사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최 선 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1동 주민자치회 간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현주입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처음에 교육에 관한 내용을 들었을 때 너무 흥미로웠어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현장에서 매우 활용도가 클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저에게 기회가 와서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너무 만족하고 감사하기만 하네요.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저는 활동을 하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도중에 교육에 대해 참여할 기회가 생겼고 사전에 교육에 대해 조금 알아보니 여러 기법을 활용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난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교육의 구성이나 참여자분들과의 관계 형성 부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하는 부분 등 너무 만족했습니다. 보통의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은 실습 과정도 병행되어 실질적인 학습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내용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서 교

육내용을 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실습도 해보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이번 교육에서는 참여하시는 분들이 워낙 뛰어나고 함께 맞춰주시려고 하는 분들이어서 큰 의견 충돌이 없었는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이와 다르게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의견을 관철되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의견을 합치시킬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리 좋은 의견이어도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 굴러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실제 현장에서 교육 받은 내용을 활용하려고 해요. 사무실에 가서 미러링 기법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확인한다던가 다른 분들이 어떤 이상한 의견을 제시해도 끝까지 듣고 의견을 조율한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저에게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주셔요. 보다 부드럽고 매끄럽게 정리, 진행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말 들을 때 달라진 부분이 있긴 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저는 포스트잇과 화이트보드를 잘 활용했던 부분이 좋았어요,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물품들인데 여태까지는 잘 활용을 못했던 것 같아서요. 어떨 때 이런 물품들을 쓰는 것이 좋을지 어떤 방법, 기법을 활용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판단하고 실습해보는 과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또한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교육 분위기, 내용으로는 너무 만족하구요, 앞으로 회의나 모임 진행을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이겠지만, 또 이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오늘 회의 참 기분 좋았다, 이렇게 진행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되 기를 기대해요, 많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해서 공부해나가려 합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교육 교육 참여자 인터뷰

박수진 마을지원활동가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최선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센터 공모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관계를 맺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관계를 맺고 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 이번 교육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조리 있게 이야기를 하고 의견들을 조율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역량들에 대해서 배우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저는 강의나 배움을 공유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요. 이러한 좋은 교육을 듣고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임이나 현장에서 이런 배움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했었어요. 이제 잘 배웠으니 어떻게 하면 잘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교육받기 전에는 제가 추후에 현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느껴졌었는데 내용을 듣고 직접 실천을 해보는 실습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교육의 효과가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마을학교,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무엇인가 활동을 할 때 아이들이 의견을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 발산 기법을 배웠고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과 실제로 진행해보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들도 좀 더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제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스킬적인 부분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교육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저는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방법 중에 7~8가지를 일단 던져놓고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재밌었어요, 보통 다음 차례에 내가 말을 해야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느라 회의에 참여하기가 집중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이 방법은 일단 의견을 모으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이다 보니 주제에 훨씬 집중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또한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일단 이번 교육을 들으면서 조금 더 성장해가는 저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구요. 이 교육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함께하신 분들이 모두 함께 성장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배운 역량을 맘껏 발휘하며 지역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교육 교육 참여자 인터뷰

김진경 마을지원활동가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마을지원활동가 업무 외에도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컨설턴트 일도 병행해서 맡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지금 제가 하고있는 업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모임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이 교육을 받고 나면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 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회의,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많지 않아서요.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방법을 통하여 의견의 합을 맞춰갈 것인지 등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처음 1일차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다른 교육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나, 미션, 태도 등을 짚어 주시는 것이나 실습 과정에서도 하나하나 조심해야 할 부분, 준비해야 할 부분 등을 확인해주시고 피드백해주시는 것을 보니 너무 좋더라구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도움이 된 것 같고 전반적인 교육내용 부분도 너무 만족했습니다.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실습도 해보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회의를 진행할 때 참여자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거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서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이 아직 전문화되지 않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더라구요. 진행에 있어서 말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후에는 다른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의 표현법들을 조금 보고 공부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일반 모임, 회의를 진행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그날 회의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이 많이 생겼구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질문할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을 배우고 경험을 쌓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이 배운 내용들을 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제 자신이 아닐까요?

교육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기법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쉽다, 뭐 이런 활동이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계속 자유롭게 냈었어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그 나온 내용을 우리가 정해놓은 주제에 맞추어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니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구요.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모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또한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교육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있어서는 너무 만족하구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앞으로 모임이나 회의, 공론장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려 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배움는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제가 이걸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정연 창 2동 주민자치회 간사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2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정연입니다. 마을에서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고민하고 있다 보니 교육에 대해 관심이 있던 찰나에 센터에서 이런 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 기대했던 점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진행하는 회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외에도 마을일들을 하다보면 갈등구조가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회의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의견들을 잘 조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배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어떠셨나요?

강사분이 일단 뛰어나신 분이어서 강의가 너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론으로만 듣고서는 사실 나중에 제가 회의나 모임을 기획하고 운영할 자신이 없었는데 교육 중간중간마다 실습에 대한 부분도 잘 잡혀있어서 자신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교육의 짜임새나 내용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해보는 실습도 해보셨는데요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셨나요?

아직은 초보 수준이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좋은 기법인 듯하여 한번에 많은 것들을 넣어 보려 하면 회의 진행자도 힘들고 참여자분들도 힘들어하시고요. 주제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기법들을 활용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관련된 모든 것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 마음 자세가 좀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교육을 받다보니 이게 잘 배워두면 내 삶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부분이라던지, 말씀주신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등 사람, 일을 대하는 제 자세와 태도에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내용 중에 제일 좋았던 점은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저는 회의 기법 중에 거꾸로 아이디어 기법,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기억에 남아요. 보통의 경우 의견의 일부분만 내시거나 취합되어 그 의견으로 통일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 다 의견을 먼저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후에 탐구과정을 거쳐 결론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 보니 의견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들을 수 있고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충돌 없이, 갈등 없이 의견을 합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최대한 이러한 과정을 거쳐 회의나 모임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 아카데미 III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어떠셨나요, 또한 앞으로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일단 좋은 교육을 배웠으니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에 대해서 복습하고 저만의 노하우, 방법들을 찾아나가려 하고 있구요. 주민자치회 간사님들과 월 1회 모여 스터디를 하기로 했으니 그러한 실습처에서 노력해서 경험을 쌓으려고 해요.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잘 공감할 수 있고, 경청하며, 그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 매끄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야기 셋

도봉구 활동가들을 만나보다

도봉구에서 즐겁고 재밌는 마을 활동을 꿈꾸며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꿈이 모두의 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김성숙 창 3동 주민자치지원관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서 병 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창 3동 주민자치지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성숙 입니다.

지원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동에 맞는 속도와 방향으로 자치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면서도 지원관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주민자치회에 관한 모든 일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행정과 주민자치를 이어주고, 민관협력과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는 존재지요.

지원관이 보는 주민자치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의제를 고민하고,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대표성, 다양성을 담보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을 안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면서 최고의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주민자치 수준은 얼마나 될지 평가하신다면?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올해 3년차가 되어가는데요. 선 마을계획단, 후 주민자치회로 마을의 의제와 예산에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활동한 경험이 성과로 이어져 주민의 권한과 역량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지원관을 하면서 아쉬웠던점은?

초기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방향과 세부기준이 부족하다 보니 사업 실행에 있어 주민자치 활동의 다양한 사례들을 모델화하는 과정에서 있어 어려움이 많았죠. 행정이나, 위원님들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각자의 이해관계, 관점의 차이가 다르다 보니 지원관으로서 방향을 잡고 가기가 어려웠던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 대외에서 보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인가요?

단계별 주민자치회 전환으로 예산사용, 의제 실행,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경험치가 쌓여 타 구보다 자치회의 위상을 높였고, 도봉구도 작년에 주민자치회 관련 분야별 큰상을 3개 정도 받을 정도이니 평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원관 업무를 맡아 진행 하면서의 보람은 어떤게 있으신가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늘 마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을 볼 때 감사한 마음과 보람을 느껴요. 사무국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고민하고 합의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의제 실행을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사고가 전환되고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럼 반대로 힘들었던 점은?

갈등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힘들었어요. 서로에 대한 이해관계, 사업에 대한 이해의 깊이, 삶의 경험치, 사업에 대한 경험치가 다 다르다 보니 충분히 논의하고 이야기를 나눠도 해결이 쉽지 않더라고요. 갈등을 해결함에 있어서 설득을 하거나 방법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럴 때 좀 진이 빠지는데 결국은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갈등 해결이 쉽지는 않으셨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적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파고드는 것보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관계를 원활하게 만들고 갈등

을 줄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 갈등 해결을 지원관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다행히 아직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요.

지원관이 보는 관점에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조언을 한다면?

주민자치는 서울시의 정책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한 맥락을 좀 더 명확하게 알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실행과정에서 자치회의 내용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고민하신다면 변화는 좀 더 빨리 올 것이고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정도라 생각하는지?

아직은 그리 높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자치회를 받아들이는 이해의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정확한 세부지침이 없이 초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보니 중심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초기 행정에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후 자율성을 확보했다면 위원님들도 자치회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빨랐을 것이고 현장의 혼선도 덜했을 것 같아요.

행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행정은 자치회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주민자치회는 조례나 지침 등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에 맞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도한 행정의 제재는 자치력을 위축시키고, 주민참여도 제한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치회의 역량과 상황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보수 명예직 주민자치회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보수 명예직으로 봉사하시는 것이 자치회 특성상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현재 너무 많은 과업을 감당하고 계셔요.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과업을 주면서 결과물에 대해 압박을 하는 구조는 오히려 자치력을 훼손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에게 일정 부분은 보상도 주고 주민자치회 경력을 어떤 식으로든 인정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픈 말씀이 있으시면 한마디?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시거나 또는 주민자치회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이 자치회를 떠나더라고 마을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부심으로 남길 수 있도록 주민센터 벽 한편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 위원님들의 핸드페인팅이나 기록을 남겨두는 이벤트 등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회의 일원이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의 큰 자부심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이죠.

이영기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팀 팀장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서 병 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민자치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영기입니다.

주민자치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주민이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주민자치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어려운점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강력한 행정의 영향력(협조적 행정/방임하는 행정)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어요. 현재는 아무래도 주어진 예산과 행정적 예속된 체계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주민분들의 역량이 오르면서 행정을 압도하는 주민들의 힘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분들의 역량이나 모여진 힘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민분들의 역량이나 모여진 힘이 절대로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자치를 할 수 있는 기반과 조건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그 힘이 발휘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요. 더불어 50명 내외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의제를 만드는 과정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은 뛰어나지만 아직 공동체를 기반한 자치회 역량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지금의 주민자치회는 지속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되요. 하면 할수록 지치고, 힘들고, 보람도 많이 느껴지지 않는 등의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보상체계가 마련이 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더불어 주민들에게 제도, 진행방식에 대한 부분을 맡기고 스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볼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통제와 제약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위원과 분과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큰 차이는 없지만, 굳이 꼽으라면 정기회의 의결권이 있고 없고가 대표적 차이로 볼 수 있어요. 크게 본다면 분과원은 나무를 보되 자치위원은 나무와 숲을 같이 보는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좀 더 발전된 주민자치회가 되려면?

지역·주민·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맞춰가려면 먼저 사무국 체제가 안정되어 사회경험이 다수 있고 행정 능력이 있는 분들이 사무국장이 되고 간사분들이 지원하고 협업하는 구조의 조직이 되면 사무국을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민자치회 2기가 출범했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민자치회 연임률이 66%정도 되요. 이렇다 보니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고 임원진들의 책임감 및 관심도도 매우 높아진 상황이죠. 여러 가지로 회의체계나 업무들에 있어 안정되다 보니 자치활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향후에는 연관 분과장 회의를 조직해서 동별 자료나 정

보 및 의제들을 상호 공유하고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2기 위원들께 바라는 말이 있으실까요?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게 쉽지 않은데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여건이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함께 끝까지 완주를 해주셔야 이러한 힘들이 모여 주민자치회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으시더라도 의미에 뜻을 두시고 롱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윤재 방학1동 주민자치회 간사
서준수 방학1동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서 병 열**



자기소개 및 간사 지원동기는 무엇인가요?

이윤재: (이하 이) 안녕하세요 저는 방학 1동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윤재입니다. 원래 저는 간사 활동하기 전에 도봉노인복지관에서 일했었어요. 노인복지 서비스 사업에 있었죠. 행정 도우미로 있다가 방학 1동에서 간사를 채용한다는 소문을 듣고 관심도 있었고 예전에 마을기획단 활동도 했었거든요. 그때 해보니 마을 일이 나쁘지 않더라구요. 나쁘지 않다는 것은 그 경험이 있어서 두렵지 않았다는 거였죠. 간사라는 일이 예전에 내가 있었던 조직과 다르지 않아 적응하기 쉽겠다. 생각이 들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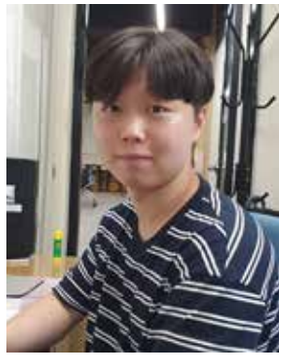
그럼 전에도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하셨나요?

이) 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이었어요. 또 마을기획단 있을 때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회까지 함께 했었죠.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분과원처럼 참여만 하면서 분위기를 익혔죠.

주민자치회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활동에 만족하나요?

이) 적응을 하면 큰 만족을 할 것 같은데 아직 근무 기간이 4개월 정도로 짧은 데다 코로나로 제대로 된 사업을 접해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적응 중이라 만족도 불만족도 크게 없는 것 같네요.

자기소개 및 코디네이터 지원동기는 무엇인가요?



서준수: (이하 서) 안녕하세요 방학 1동 주민자치회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 서준수입니다. 제가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게 된 것은 대학 시절부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대학을 부동산과 도시 계획 등을 배우는 학과를 나왔어요. 학과를 졸업하기 직전 도시재생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도시재생 과목 자체가 이런 마을 활동을 포괄한 개념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때 서울시 도시 재생활동가 교육을 받고 작년 1년 동안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 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이쪽 계통이 제 적성에 맞겠다 싶고 직업적 가치도 찾으려 노력하다가 현재 살고있는 방학 1동에서 마을 활동을 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간사(코디)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 마을 활동에 대한 실무자라고 생각해요. 그 실무만 잘해도 마을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요 역할은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 서) 주민자치 영역에 관련된 일이 엄청 많아요. 그 사업 진행이나 회의 등을 간사님이 실무적으로 처리하시는데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여러 전반적인 업무들을 해보니까 제 경험의 폭도 같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약 4개월정도 근무하셨는데 간사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이) 이곳에 잘 적응을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역량이나 그릇은 무한정 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실무는 물론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고 지금은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도 정말 큰 재산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한다면?

서) 저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간사님의 부사수입니다.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 간사님을 옆에서 잘 지원하고 도와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경험을 잘 쌓아서 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업무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 힘든 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들다면 힘든 거라 할까요?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 외에도 부가적 일이 많아 힘들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도 제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춰진 역량으로 오기보다는 여기서 키워나가는 과정이라 그 속에서 슬럼프도 올 수가 있고 부족하다는 생각에 어려움이 좀 있어요. 하지만 지금보다 성장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하기 전에는 주민자치가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왔나요?

서) 실질적으로 또래 친구들은 주민자치란 말 자체를 거의 모른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막연하게 배웠던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서 마을을 위해 예산이나 의제들은 직접 참여하여 발굴하고 집행하는 단위 정도로만 알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실제 활동을 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 부분에서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현재 2개월 정도의 짧은 근무 기간을 보냈는데 그간 느낀 점은 무엇이 있나요?

서) 아무래도 이 활동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아님 어느 정도까지만 하실 줄 알았고요. 근데 몇몇 분과에 참여를 해보면서 진심으로 마을을 위해 일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구나, 라

고 느꼈어요. 솔직히 이해관계가 없으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마을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간사와 코디네이터의 호흡은 어떤가요?

이) 현실적으로는 쉽게 가까워지기 힘든 사이인데 서준수 코디네이터가 일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둘이 잘 합을 맞춰서 일을 처리해내고 있죠.

서) 아직은 제가 일이 익숙하지 않아 쉽지 않은데 이윤재 간사님이 많은 부분 신경써주시고 함께 잘 해주셔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정을 가지고 지역의 변화를 위해 저도, 함께해주시는 분들도 함께 노력한다면 공동체를 기반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끝까지 모두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위해 많은 열정과 참여를 부탁드려요. 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주민분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우리의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숙 창 2동 코디네이터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우 경 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창 2동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숙입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마을 사업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주민자치회 간사가 있는데 간사와 함께 사업에 대한 부분,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부분 등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예로 제가 사는 창동에 작은 놀이터들은 어느 정도 있는데 아이들이 모여서 놀거나 이야기 할 수 있는 실내 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요. 이런 지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과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안하고 주민자치회나 관련된 영역에서 논의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저도 솔직히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모집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선뜻 진입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 같기도 하구요. 그래서 요즘에는 홍보 방식에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하여 홍보를 하거나, 다양한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알린다던가 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만들어질 창 2동 마을활력소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하나요?

마을활력소는 정말 그냥 주민 전체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편하게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구요. 다양한 활동도 이뤄지고 서로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이 활력소라고 생각하고요. 프로그램이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과 함께 고민해서 내용도 만들어가려 준비 중입니다.

현재 업무를 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요?

아무래도 각 동별로 성향이나 특색에 맞추어 업무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업무량도 다르고요. 이런 부분에서 간사나 코디네이터들이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주민분들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짧은 시간안에 쉽게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와중에도 업무는 계속 밀려 들어오고 하니 정신이 없죠. 더 힘든 건 혹여나 같이 일하는 간사나 코디네이터분들이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혼자서 그 일들을 처리해야 하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중간자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힘들진 않으신가요?

제가 작년에는 간사 활동을 했었고 올해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 주민자치회 활동에 있어서는 간사님이 주로 나서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간사님의 역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 선을 잘 지키면서 중간자 역할,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따로 힘들거나 한 부분은 아직까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 있나요?

너무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변화를 위해 열정을 갖고 함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살고있는 마을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호규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우경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창 3동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을 활동을 꿈꾸는 임호규입니다.

다양한 마을활동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예전부터 마을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마을미디어 분야에 도움을 드린적이 있는데 그때 "와,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면서 마을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창 3동에 온 후에는 어느 기회로 주민총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쭉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마을미디어 분야에 어떤 도움을 드렸었나요?

창신동에 있는 라디오 덤이라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인연이 되었냐면 일단 그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이었어요. 도시재생을 처음 시도해 봤던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마을미디어를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저와 어찌저찌 인연이 돼서 제가 장비나 라디오 관련해서 세팅하는 부분을 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팟캐스트도 운영하고 마을의 내용을 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했고요. 라디오 덤과는 지금까지도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창 3동은 마을미디어 쪽으로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요?

미디어는 일단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전 마을미디어 분야에서 홍보가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이 별도로 없어서 뭘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데 지금은 온라인이 활성화 되면서 그러한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장비가 어느 정도만 갖춰져도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수준이다 보니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컨텐츠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마을미디어는 어떤가요?

저는 어떤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활동가 한명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마을미디어를 구축하고 그걸 운영하고 유지하는 방식은 안되는 것 같아요.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 같구요. 사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 혼자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역 내 각각의 사람들이 동네 기자가 되고 동네 미디어센터가 되는 구조를 생각하고 있어요. 각자 본인이 홍보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된다면 정말 마을미디어 분야가 활성화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일들을 지역에서 해보고 싶으신가요?

마을에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마을의 미래가 있을텐데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문화 부분을 좀 더 지역에서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도봉구에 현재 문화 관련하여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마을에서도 다양하게 목표를 가지고 한다면 더 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다 여러 분야에 대한 지원 또는 계획들을 통해 지역이 좀 더 활기차게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민윤경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우 경 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창 2동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민윤경입니다.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현재는 창 2동 작은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구요. 별도로 조작이라는 공동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작'의 의미는 "만들고, 짓는다" 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뜨개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저희는 2019년부터 모임을 시작했고 회원은 1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끼리 모여 소소한 재미를 느껴보려 시작을 했었는데 구성원들이 점차 동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동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뜨개를 하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끈을 활용해서 바인더 끈으로 가방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있구요, 연말에는 날씨가 추워지니 목도리를 제작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품들을 지역, 동네에 기부도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만들 때 저희는 강사를 따로 모셔서 하지는 않고, 저희가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배운다던지, 주변의 지인들께 자문을 구한다던지 하는 방식으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답니다.

“조작” 공동체는 앞으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까지 다양하게 활동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올해에는 이런 활동들을 연말에 전시회도 열어서 올 한해 활동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도 갖으려 하고 있구요, 지역 안에서 플리마켓도 진행해서 물품에 대해 홍보도 할 계획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모두 구성원들과 논의를 거쳐 정한 계획들이구요.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답니다.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에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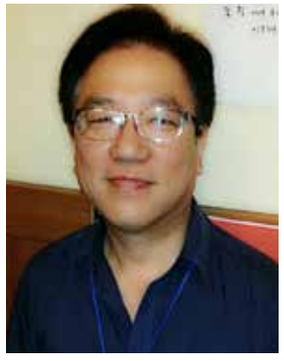
앞으로도 매년 즐겁고 유쾌한 활동들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부터 좋았고, 하다 보니 너무 잘 맞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나중에는 정말 작품성으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저희끼리는 그래도 작품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작”은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길 바라시나요?

현재 “조작”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어요. 정말 좋은사람들이 모여 지금 즐겁고 유쾌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더불어 지역에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건순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우경림**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임건순입니다.

현재는 어떤 일과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았는데 가장 주력으로 했던 부분은 영유아 영어 프로그램 관련 출판사 사업을 했었구요 10년 전부터는 의류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문화 관련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음악이죠. 예전부터 기타나, 악기에 조금 관심이 있었다가 마을에서 우연한 기회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음악 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취미로라도 음악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한 40대 중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우연한 기회로 지역의 라이브 카페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기타를 쳐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긴거죠. 근데 막상 연주를 해보려 하니 너무 오랫동안 안쳤는지 연주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오기가 생겨서 ‘아! 연습을 해야겠구나!’라고 느끼고 그때부터 기타를 같이 칠 사람들을 구했죠.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이 통기타와 우리들이라는 모임이었고 3년정도 활동을 했죠. 그 후에는 사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 모임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음악에 대한 갈증이 생겨 순수하게 봉사 위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를 위한 통기타 밴드를 2011년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지금까지도 이어서 하고 있는거구요.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신다 했는데 어떤 활동인가요?

지역에 문화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당장 먹고 살기 바쁜 현실에 이런 힐링 노래라든지, 음악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못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공연을 하거나 음악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성보호센터나, 비전트레이닝센터, 성 안드레아 신경정신병원, 양주시 삼숭동에 있는 나루터 등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이것도 우연한 기회에 저희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공연도 하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의뢰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자주 가서 공연을 하니 담당자가 “혹시 어르신들에게 노래도 가르쳐 줄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물었던 거죠. 그 우연한 기회로 지금도 재미있게 어르신들과 노래교실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 남 배려나 이런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라도 제가 여러 가지를 배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한 것으로 봉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다양한 자격증을 따거나 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래 지도사 과정이나, 자원봉사 자격증 이런 자격증들도 따거나 공부를 하고 있죠.

앞으로도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또 계획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내용은 정말 많아요. 요즘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렵다 보니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일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정도로 문화의 공급자, 수요자 개념 없이 정말 다 같이 재미있는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은정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최 선 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1동에 거주하고 있는 오은정입니다.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동네에서 20년 정도 같은 곳에서 거주했는데요. 여태까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을이나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아이들이 다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주변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조금씩 가게 되고 지역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게 되니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2년, 3년 됐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통장 일을 하게 되었고. 통장 일을 하면서 마을 소식을 더 많이 접하고 알게 되니까 마을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어요. 현재는 작년에 창1동에 마을계획단이 생겨서 같이 활동도 했었고요. 마을계획단이 끝나고 올해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기에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같이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웃만들기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사업인가요?

일단은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끼리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긍정적인 활동을 지원해주는 취지의 사업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성원은 같은 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모여 시작하게 되었구요. 저희 사업명은 ‘바이러스 불시착’이에요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사업명인데요. 처음 사업을 제안할 때가 3월이었어요. 아이들이 등교를 못하는 때였구요. 그래서 저희는 모임명도 “향락”이에요,

향기롭기도 하면서 바이러스도 없애보자는 의미를 갖고 시작하게 되었죠. 활동은 다양한 방역 제품들을 만드는 내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제 마스크, 손 소독제, 핸드워시, 디퓨저, 모기퇴치제 등 요런 제품들을 말이죠. 다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만나기가 어려워서 많이 진행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활동을 이어가실 생각인가요?

맞습니다. 올해 내용이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아서 저희는 내년에도 같이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을 배워가며 진행하려 해요. 처음에 저희가 4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사람을 찾고 대화하면서 좀 더 많은 인원들과 함께 하려 했었거든요. 코로나 상황만 좋아지면 내년에는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어떤 역량 강화를 하고 싶으신가요?

마을에서, 지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사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데요. 자아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거나 더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싶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역량을 강화하고 싶네요. 사실은 배우고 싶은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멘탈을 약하게 만들은 것 같아요. 생각을 좀 많이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차차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이웃과의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아이들의 학부모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학부모들과 친목으로 만나는 경우도 자주 있고 같이 뭘 배우면서 만나는 분들도 계시구요. 이런 일상속에서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동네에 바라는 점 혹은 마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거창하진 않구요, 저는 정말 저희 동네가 진짜 살기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타 지역 지인들에게 우리 동네 너무 살기 좋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제가 너무 애정하는 동네이다 보니 동네에서 이뤄지는 많은 일들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다른 부분으로 동네에 바라는 점은 없고요. 다만 아이들, 청소년들 교육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채워지길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마을 관련된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문화적이든, 체육적이든 상관없이요. 그런 부분들까지 채워진다면 완벽한, 환상적인 동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세 영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최 선 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 창동에 있는 샘터지역 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고있는 한세영입니다.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마을에서 저는 평생교육 미디어분과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봉구 청년활동가 활동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상태구요. 올해는 서울시 마을미디어 운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운영자는 서울시에서 각 동에, 혹은 마을에 미디어 교육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교육을 잘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을미디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마을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게 시작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아직 어리다 보니 쉽게 이야기를 터놓고 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때마침 마을미디어라는 분야가 생겼고, 사람들의 관심도 미디어 분야에 많아지면서 저는 미디어에 대한 기술들을 알려줄 수 있고, 주민분들은 그동안에 살아오신 경험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 너무 와닿았었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활동도 그렇고, 이런 마을 일을 젊은 나이에 시작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로 지내고 있었어요, 앞으로 저는 목사를 꿈꾸고 있는데, 종교를 다 떠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을 찾고 있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연한 기회로 마을계획단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청년 활동가는 사실 활동이 오래되진 않았어요. 청년활동가는 도봉구의 청년활동가들이 모여서 도봉구에 과연 어떤 여려움들이 있을까에 대해 문제를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그런 활동 또한 나와 같은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죠.

마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저는 사실 시골에서 자라서 마을 하면 정말 친숙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20살 때 서울에 올라오면서 마을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마을 활동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 서울 또한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고 뭔가 공동체 같은 느낌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활동함에 있어서 어려운점은 없나요?

사실 처음에는 금방 그만 둘 것 같았어요.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분들이 저한테 응원도 해주셨고요, 작년에 공개방송을 하면서 다양한분들과 이야기를 하며 정말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분들의 살아온 인생을 들으며 정말 이 일을 하기 잘했다. 마을계획단에 들어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려움도 많아요 조금 젊기 때문에 일들이 몰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구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보다 즐겁고 따뜻한 기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잘 넘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미디어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사실 이 미디어 분야가 제대로 된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TV나 인터넷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내용 들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을 통해 영

상들을 보면서 그 안에 문구나 폰트, 연출 등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제가 포토샵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가적으로 업무나 활동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도 학습을 하고 있구요.

마지막으로 마을, 활동에 바라는 점은?

사실 마을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도 있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또 전혀 모르게 되잖아요? 사실 저도 주민자치 관련 일들을 할 때도 일이 별로 없는 줄 알았고, 여러 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별일이 없다. 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정말 다양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구요. 또 마을에, 내 주변에 정말 지역, 동네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마을의 의미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이 젊은 사람도 참여를 하면 더더욱 좋겠다는 생각도 했구요.

이상호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최 선 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민생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현재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동네에서 도봉민생상담소라고 하는 사회복지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서 지역복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을미디어, 복지미디어를 가지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고 하는 복지시민단체에서 복지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그런 내용들을 시민들께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민생상담소에 대해 소개 부탁드려요

민생상담소는 10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취직하기도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면서 내가 보람이 있는 그런 일을 해보겠다고 설립을 일단 무턱대고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로 사회복지 상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사회복지 제도라는 것은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거든요.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고요.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인데 내용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상담을 주로 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사회복지라해서 우리 지역의 복지는 어떠한가? 이런 주제로 연구들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대학에서는 보건학, 보건의료학을 전공했고요. 직장 생활 5년 정도를 이런 분야에 관계된 일을 하다가 불현듯 제가 하는 일이 보람도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유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런 공익적 활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10년 정도를 했는데, 동네일도 하게 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만들어가면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내가 생각하는 마을이라는 것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삶, 터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웃을 사랑하고 제가 만드는 미디어를 통해서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것이 마을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어떤게 있나요?

에피소드는 아니지만 스스로 목숨을 던지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 분이 두 세분 있었는데, 그 분들을 만류할 수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제가 생명의 은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보람 있는 일이었죠. 마을미디어, 복지미디어를 만들면서 이웃분들과 동료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 즐겁고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분들이 화면이나 라디오의 주인공이 되고 기사의 주인공이 될 때 뿌듯해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도 같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활동하다 보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있는 곳이 40여 평인데 이 공간을 유지한다는게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적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 후원하시는분들의 후원금 등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이 부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버거워서 이런 일을 계속 해야하나, 다른 일을, 새로운 일을 하면서 마을 활동을 해야 하나? 등의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어떤 부분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이웃을 주인공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에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구요. 동네에서는 자원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쌍문3동 동복지위원회, 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홀로 사는 어르신들 생신 챙겨드리고,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나들이도 같이 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쌍문 3동 마을계획단에서는 문화분과 위원으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이 있나요?

한국사회는 고령화, 지금 이미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인데요. 어르신들이 더 많아질거고 근데 또 혼자 사는 어른은 더 많아질 거고 해서 장기요양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를 함께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을 섬기고, 어르신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통의 도구들을 그쪽에도 활용해보고, 마을과 복지를 더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숙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최 선 희**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1동 주민자치위원장, 마을계획단, 도봉구청 감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숙입니다.

다양하게 봉사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가 17 ~ 18년 전부터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맨 처음 봉사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아이들 동화구연을 가르쳤었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을 때였어요. 마침 창일초등학교에 계셨던 선생님이 상계초등학교로 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해주신 게, 창일초등학교에는 급식을 자기 돈을 내고 먹는 아이들이 대다수였는데, 상계초등학교에 와보니 아이들이 급식을 돈이 없어서 못 먹고 있다는 거에요. 그때 저는 이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겠구나 했죠.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해서 점차 4명, 6명, 나중에는 8명까지 아이들 급식지원 봉사를 해줬고, 그리고 나서 학교 활동에 전반적인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 일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창1동에는 다른 곳보다는 생태계 공원도 많고, 생태계 공원 안에 체험시설도 많아요. 주민들이 나와서 여기가 생기니까 참 좋구나, 발품 팔아서 나와서 한 번씩 초안산도 걷고, 생태계 공원도 나오시고 옆에 체육시설도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조금 더 주민으로서 같이 주변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닫힌 문화가 아니라 함께 공유하고 즐기는 문화, 열린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는 다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 함께 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창1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보람찬 일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마을계획단 활동 중에 가장 생각이 나는 것은 마을계획단에서 마을 의제들을 찾아놓은 것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날이었어요. 처음에 200명, 250명이 과연 모아질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려 350명의 주민분이 참여를 해주셨고 더불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의제들을 공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TV 프로그램 '안녕하세요'의 형식으로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참여자분들이 버튼을 누르면서 내가 원하는 거에 찬반을 표현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제를 같이 찾고 만들었다는 것이 정말 의미있었다고 생각해요. 또 원래라면 그 나온 의제들을 올해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실행하는 건데, 코로나 때문에 다 발목이 잡혀서 못하는 게 조금 속상은 하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주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무엇이 있었나요?

일단 모든 내용에 있어서 모두가 같이 만족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민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조율을 해야 하는데 의견이 너무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고 하는 분, 왜 굳이 주민들을 다 불러서 하냐라고 하는 분, 다 세금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 등 현장에서 이러한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우리의 마을이 그만큼 변화가 생기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것은 이제 다양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게 필요한데 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계속 비슷하게 들어오다 보니 다양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고 싶으시거나, 가까운 미래에 계획하신 일이 있나요?

이제 주민자치회가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 마을계획단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해단을 하면서 내년에는 없어집니다. 마을계획단 활동을 하시던 분들 중에서도 정말 뒤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내년에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창1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창 1동의 다양한 자연들을 함께 즐기고 찾아오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동네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경림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동에서 3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우경림입니다.

창동에서 정말 오래 거주하셨는데요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창 2동 왔을 때는 동네가 시골 동네였어요. 그리고 예전에 이 곳이 배밭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가 좀 이렇게 굉장히 서울 외곽쪽에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동네가 좀 어둡다고 할까? 건물들이 낡고 오래되어서 조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우이천은 말 그대로 개천이었어요. 작은 개천이었던 것이 지금 공사를 해서 물이 더 많아진 것이 많이 달라진 것 같네요. 그때는 일반 개천이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범람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창동에 사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창동에 살면서 이제 초안산이 있고 앞에는 천, 주변에는 도봉산, 북한산이 있다 보니 공기가 정말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요즘이야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공기가 좋았었거든요. 또한 이제 나이가 있다보니 복잡한 동네보다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창동이 포근하고, 안정감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반면에 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도봉구의 학교 관련된 문제를 조금 개선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별로 유입인구나 유동인구의 차이 때문에 학생들이

한쪽에 몰리는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서요. 젊은 엄마들은 시설이나, 교육의 수준 등을 생각해서 아무래도 신설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학교들은 학생수가 모자른 반면 새로 생긴 학교들은 너무 아이들이 많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마을에서 공방도 운영하고 계시다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려요

숲속의 공방 이름은 숲속에입니다. 제 이름이 우경림이잖아요? 임금 우에, 서울 경, 수풀 림자를 써요. 그래서 '숲속에' 숲속으로 들어간다, 자연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만들게 된 계기로는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저렇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오다 보니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 저것 배우다 보니 하나의 창고가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창고가 이제 개인 공방이 된 거구요. 2013년 ~ 2014년 즈음에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고 하다보니 또 지역의 작은 문화센터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제작하는 것은 천연 제품들이구요. 예를 들면 천연비누 캔들, 아로마 관련 물품 등 토탈 공예는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작년부터는 일러스트라고 하는 부분에도 눈을 돌리게 돼서 일러스트 수채화를 하고 있고요. 같이 활동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자격증도 따서 마을학교에서는 일러스트 플로링아트, 스트링아트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답니다.

공방을 운영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공방이라고 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공간도 사장님이 배려해주셔서 8년째 같은 금액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정말 감사하죠. 그 작은 공간에서 이제 월세정도만 나오면 만족하고 있어서 그럭저럭 지금까지 잘 운영해 온 것 같네요.

자취위원회 분과 관련해서나 지역에서 어떤 같이 하는 사업, 프로그램 등도 있나요?

창 2동, 창 3동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구요, 창 3동 같은 경우 재작년부터 도시재생 분야에서 열심히 또 일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창3동의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창2동 주민자치회 자리를 내려놓고 창3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도시재생에서 하는 공모 기획사업에 '해피타임'이라는 사업명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피타임은 공방 분과의 사람들이 모여 공방 관련된 사업의 아이템이나 내용들을 가지고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마을에서의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나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함께 할 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내가 사는 지역의 내 이웃과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주민 전체의 마음을 같이 모으고 뜻을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서 5%, 10%만 맞춰도 굉장한 인력이잖아요. 그 단 2%, 5%의 마음만이라도 모여서 함께 그 마을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 점이라든가 마을의 특화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마을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김희련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살고 있는 김희련입니다. 저는 자연 환경교실에서 자연 해설단 활동을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자원봉사도 하고 있고요.

이쪽 지역에 굉장히 오래 거주하셨는데요. 동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릴 땐 도봉구 우이동에 살았어요. 그린 파크에서 도선사 올라가는 쪽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볼 때는 그냥 시골을 품고 있는 서울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수유동에서 살았어요. 그때에도 거기도 도봉구였었죠. 그때 당시의 도봉구는 정말 농촌, 시골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저희는 온 동네가 놀이터고 뒷동산, 개울, 잠자리 잡으러 다니는 것 등 그런 모든 활동을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도 그런 전원생활을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 했던 거 같습니다.

도봉구에 사시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우이동은 물이 깨끗하잖아요.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예전에는 가서 우이동 개천에서 손 씻고 얼굴 세수하고 담그고 왔습니다. 물고기도 엄청 많았고요. 송사리라든가, 피라미, 메기, 뱀장어도 있었던 것 같네요. 또 산이 주변에 있다 보니 너무 좋더라고요. 어느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인수봉이 정말 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잘생긴 산이 어디있나, 나는 평생 바라보고 살리라'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불편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나요?

예전에는 교통이 안 좋았죠. 그때는 더욱더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일여객 이라는 버스가 하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경일여객이 요새처럼 5분 10분 이 아니라 배차 간격이 굉장히 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골에서 버스가 다니는 것하고 비슷했던 것 같네요.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떤 활동가 일을 하고 계시나요?

도봉 환경 센터에서 자연 해설단 활동을 하고 있어요. 교육 내용으로는 유치원생부터 성인까지 환경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교육. 아침에 학생들이 오면 우리가 자연 체험 가르쳐 주고 에너지 교육, 기후변화 교육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교실이라 해서 직접 학교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놀이 교사 프로그램도 있어서 놀이 수업도 하고 이런 환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활동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 있나요?

활동하면서 문제가 되는 거는 모두 다 마찬가지겠지만 처음에는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었던 거 같아요. 원래 이렇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 특히 교육 봉사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주장이 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거나 취합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도봉 환경 교실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실 환경교육의 효과성이라는 게 금방 눈에 보이게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점차 다양한 대상들에게 친환경 교육을 많이 진행해서 변화를 만들어보는 그런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크게는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내용을 가르쳐서 점차 아이들이 커가면서 환경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마을에서의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시나요?

같이 무엇인가를 꿈꾸고 진행해 볼 수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다는게 너무 고마워요. 이런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제가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너무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자연 해설단은 저한테는 이제 제 2의 인생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걸음을 뒀으니 다른 것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된 동기, 의지가 된 것 같아요.

강대훈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2동 주민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도봉 양말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강대훈입니다. 한 23년 정도 이곳 도봉구에서 거주를 한 것 같네요.

창 2동에 사시면서 마을 모습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나요?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창 2동 주민자치에 들어온 게 지금 한 13년 정도 돼가요. 그렇지만 변화는 최근에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이천, 초안산의 변화라든가 우리 동네에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게 많이 생긴 것 등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마을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에는 행정에서도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 같더라고요.

창동에 사시면서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창동에 살면서 이 동네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웃 간에 서로 아껴 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 내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던 그런 풍경 같은 모습이 창 2동에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시골에 뭔 행사가 있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 2동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회장님으로서 지역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활동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갔었고 그렇게 활동한 것이 지금 13년 정도 됐어요. 오랫동안 동네일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 위원장도 하게 되었고요. 처음에 저는 나름대로 내 사업이 있으니까 안 한다고 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제가 꼭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켜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웃음) 지금은 제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이것, 저것을 챙겨야 하니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보람을 느끼며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림초등학교 앞에 세워지고 있는 창2동 주민 복합 공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위치가 원래 사고가 잦은 곳이고 아이들이 통학하는데에도 많은 불편한 점이 있는 곳이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한다. 라고 12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하고 요청하고, 건의해 왔던 곳이에요.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창 2동 주민 복합 공간이 들어오면서 도로도 같이 개선된 거지요. 주민복합공간은 앞으로 창림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것 같아요. 창동에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생긴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에 대한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지역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사업도 사업이지만 행사, 축제 등으로도 다양한 소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주민들과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지금 아무래도 양말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양말 공장이 많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지역의 브랜드, 트렌드를 만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양말 거리 조성을 시작했었어요. 다양한 사업을 했었는데 벚꽃 나무에다 나무 옷을 싸주는 것도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던 것이었고요. 이런 사업들을 이웃 주민들과 함께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점점 더 친해지고 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유쾌한 상상이지만 앞으로 창동에 양말 타운이나 관련 박물관도 생겨서 양말 제조의 역사나 지역성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재미있게 소통했으면 좋겠네요.

김진경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지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경입니다. 지금 마을지원활동가의 업무와 더불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활성화사업 컨설턴트 일도 하고 있어요.

마을지원활동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에는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제가 지원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는 도봉동에 위치한 '모모'라는 독립서점에서는 책을 읽고 소통하는 활동인데요,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사전에 읽고 책에 관한 내용을 나누는 모임이에요. 특색 의제로 들어온 '문득'이란 팀에서는 영어 원서를 읽고 그 내용을 다시 영화로 보며 영어를 공부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또 한 팀은 '무수골 꿈틀 발전소'라고 해서 생태 체험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체로는 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양한 마을 소식을 전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창 프로덕션'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연초가 되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있어요. 주제에 맞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내용, 예산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난 후 사업을 신청하시게 되는데요. 이웃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로 서류를 신청(인터넷 접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공동체간 네트워크는 어떤지 그리고 관계 형성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네트워크나 관계 형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처음으로 사업을 접해봤거나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격이 비슷한 곳, 아니면 같이 연계 활동을 하면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 같다는 팀과 매칭을 해서 함께 활동에 대해 고민하고,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을지원활동가 업무를 하면서 에피소드나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활동이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기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5월 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행사가 있었는데, 사전에 체험 물품과 간식들을 묶어서 꾸러미를 만들었고 이것을 저희가 신청자들 각각 집으로 배달을 해주는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청자들 각각 집에 배달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교통수단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선생님 두 분과 같이 그 두 발로 뛰면서 장소를 찾았었는데 아주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양한 곳들을 가다 보니 새로운 길도 가보고, 우리 동네였지만 잘 가보지 못했던 곳들도 돌아다니면서 새롭고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보람도 있었구요.

지역 활동이 선생님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모임과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다양하고도 새로운 마을 활동을 통해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나에게도 어떤 성장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활동하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중함과 따뜻함을 알게 된 거 같습니다.

이정연

[기록] 50+마을기록지원단 **정 지 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창2동 주민자치회 간사 이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올 2월부터 간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을에 벌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조율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로 활동한 기간과 처음에 활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올 2월부터 간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5개월 정도 되었고요. 처음에는 마을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일반 직장이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었던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배워가면서 정말 마을을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으시다는 것을 보고 느끼며 배워가는 단계입니다.

간사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일단은 활동함에 있어 마을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게 사람 관리가 제일 고충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 일이 크던, 작던 간에 조그만 일이라도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의견이 다르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는데 그런 갈등관리를 중간에서 잘 조율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애로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간사의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사 업무는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나, 회계는 기본이고 진행되는 회의에 대해서 회의 안건지들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것에 따른 내부문서들을 처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사업 실행계획서와 보고서 등의 자료들을 작성하고 또 마을 구청 혹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들을 작성하고 공유하는 등의 업무, 관련 교육이나 회의에 참석하는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많은 활동의 제약이 있는데요 별도의 대책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저희 회의나 모임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작년보다 회의는 잘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연세들이 있으셔서 적응하시는게 조금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대면으로 하되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회의를 진행하고요, 어차피 분과별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과별 회의나 모임은 소규모로 10명 내외로 만나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 이외에 다른 마을 활동도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요?

지금은 간사 업무도 파악하는 단계이고 다양하게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일단은 제 관심이나 초점을 이쪽 간사 활동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다른 활동까지 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싶네요.

주민자치회에 바라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주민자치와 지금 이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하고는 개념이 조금 약간 다른 거 같아요. 온전한 주민자치로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행착오가 더 겪어져야 할 거 같은데 정말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발굴하는 그런 자립심이 더 많이 생겨야 할 것 같고, 의제를 실행하다 보면 솔직히 다른 동들도 그렇겠지만 다 비슷비슷한 의제가 많거든요.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마을이 조금이라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의제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야기 넷

50+마을기록지원단 활동 소감 나눔

2020년은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해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양하게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신 50+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활동에 대한 내용
및 소감을 들어보려 합니다.

50+ 마을기록지원단 활동 관련 4인 4색 토크!!

4인 4색 토크 질문

1. 도봉 생활은 어떠하셨나요?
2. 올 한해 50+ 마을기록지원단 활동은 어떠셨나요?
3. 활동에 대한 개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올 한해 활동에 대한 보람 및 소감은?



이야기 넷

‘50+ 마을기록단 활동을 마치며’

서병열



직장 생활, 개인사업 등 앞만 보고 달리던 중 어느 순간 나를 뒤돌아보게 되었고 이제 조금은 숨을 고르고자 예전에 했던 음악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지역 내에서도 주민을 위한 협치나 일자리, 기타 봉사 등 많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 이후 음악 할동을 하면서 알게 된 지역활동가분이 주민자치회를 추천해주어서 가입하게 되었고 활동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50+ 재단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서부 캠퍼스에서 50+ 마을기록단을 뽑는다는 정보를 입수하여 내가 하고픈 일에 아카이빙을 접목시키면 제2의 인생이 즐겁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어 지원하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일원으로 일하게 되어 그냥 즐겁게 하다 보니 1년이 지났고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었다. 코로나로 인해 생각한 만큼의 일은 하지 못했으나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베드타운이었던 내가 사는 도봉이 서울의 북단으로 명산과 명소가 많은 살기 좋은 동네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은 큰 보람이었다. 50+마을기록단의 역할을 행하면서 도봉에 17대 명소가 있다는 것도, 중랑천이 이리도 맑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도, 내 주위에는 아무 대가 없이 우리 동네를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주민자치위원, 활동가분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인터뷰 의뢰를 했을 때 일부는 귀찮아하기도 했고, 형식적이니 빨리 끝내자는 의견을 보였으나 막상 인터뷰를 해보니 무슨 할 말씀들이 그리 많았는지 하나같이 30분 예정의 인터뷰를 4~5시간씩 해서 너무 놀랐다.(물론 내가 말씀을 하도록 잘 이끈 것도 하나의 동기였겠지만 ㅎ) 물론 Off the record도 많았고 사적인 얘기도 많았는데 인터뷰 안 실려도 좋은데 속 시원히 얘기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내게는 이게 바로 보람이고 일의 성취였다고 생각됐다. 덕분에 초보자로서 녹취록 푸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웠으나 50+마을기록단 덕분에 자연스럽게 많은 분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생각이 다른 분들은 서로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내년에도 기회가 온다면



좀 더 깊이 있게, 지역활동가들뿐만이 아니라 소리 없이 묵묵히 동네를 위해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다. 끝으로 음으로 양으로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묵묵히 도와준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지훈 쌤 정말 고마웠어요~

이야기 넷 '50+ 마을기록단 활동을 마치며'

우경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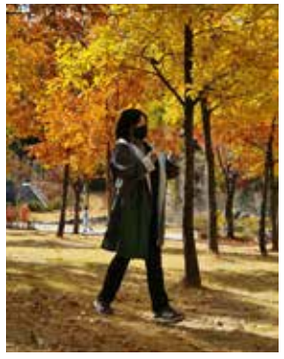


어느덧 서울시 50플러스 마을기록가로 활동한지가 3년차 되었습니다. 짧고도 긴 시간이었으나 되돌아보니 나에게는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생각 없이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아카이브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대한 중요성과 특히 사람의 삶을 기록한다는 것은 정말 보람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한분 한분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 계기도 되었고요. 도봉구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마을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겠지요. 이러한 분들을 위한 기록이 후세에 좋은 자료로 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후반에 의미 있는 일을 해본 것이 왠지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기록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활동해 보고 싶습니다. 도봉구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사람을 키워나가는 도봉, 마을을 멋지게 만들어나가는 도봉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는 마을기록가로 활동하면서 생각이 엄청 젊어지고 외모도 학생처럼 변해가고 있다고요.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지만, 제 자신도 가끔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였답니다~^^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만 꿈을 꾸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요즘 또 다른 꿈을 위해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꿈의 도전을 준 마을기록가 활동 잊지 못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넷 '50+ 마을기록단 활동을 마치며'

최선희



아쉽다. 2020년 활동도, 2019년, 2018년, 3년 동안의 활동을 통틀어봐도 보람보다 아쉬움이 더 크다. 좀 더 잘해볼 걸 그랬다. 3년을 하고 나니 마을기록에 대해 이제 좀 알 것 같다.

2018년 지인의 권유로 50+ 마을기록활동가에 지원했다.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해서 동네 이곳저곳을 걸어 다니며 마을 여행을 즐기던 때였다. 3년 연속으로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람들과 공간을 만났다.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과 공간의 만남도 있었다. 낯선 공간과 사람에게 다가가기도 했다. 인터뷰하고 녹취를 푸는 활동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서로 다른 마음이 인터뷰를 통해 속내를 털었다. 서로의 내면에 가까이 가려고 귀를 기울이는 게 인터뷰였다. 마을기록지원단 활동은 활력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주었다. 재밌었다.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게 진한 애틋함이 생겼다.

마무리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록하는 공동 활동이 부족했다는 점이 해결하지 못한 과제처럼 남았다. 아쉽다. 아쉽다고 생각하니 첫해에 함께 고생한 우경림 샘, 신영미 샘이 생각났다. 우경림 샘은 3년을 같이 한 고마운 인연이었다. 작년에 함께 한 전영임 샘도 잘 있는지 궁금해졌다. 올해 함께 한 서병열 샘, 정지실 샘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웃음 짓게 하는 김은희 샘, 강주혜 샘이 있었다. 2018년 마을기록활동가로 시작하는 열정만큼이나 더웠던 그해에 든든한 지지자로 김은희 샘이 있었다. 강주혜 샘과 선진지 견학을 간 것도 추억으로 남았다. 2020년 올해는 관리자의 능력과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다정다감하게 보여준 김지훈 샘이 있었다. 무엇보다 서울시 50+ 마을기록지원단 활동은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마을기록지원단 3년의 활동을 하면서 사람과 공간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무형의 것에도 관심이 생겼다. 이 관심이 다양한 기록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2018년 주변의 권유로 50+ 마을기록활동가에 지원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까지 내리 3년을 마을기록지원단으로 활동했다. 낯선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녹취를 푸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3년 동안 재밌었다. 주변의 변화에 민감해지고 사라져가는 것들에게 애틋함이 생겼다. 사람과 공간에 대한 기록뿐만이 아니라 유형, 무형의 것에도 관심이 생겼다. 이 관심이 다양한 기록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록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 마무리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록하는 공동 활동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정지실



올해는 50+활동가로 일을 한 지 두 번째의 해이기도 했고,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한 해이기도 했다. 두 번째로 일을 하게 되니 처음보다는 시야도 넓어지고 더 숙련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대면 활동이 제한되면서 기록 활동이 위축되거나 재택활동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우려한 것에 비해 50+활동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 편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이를 출발점으로 해서 활동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일과 활동이 다양해지고 많아지면서 올해는 최고로 바쁜 해가 되었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앞으로의 삶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도 생겼다. 자치 활동을 메인 활동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했었던 기록 활동의 질적인 문제도 스스로 활동 범위를 넓혀가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고,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노련함도 생겼다.

여기에는 담당 선생님의 도움도 컸다. 김지훈 선생님은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사람처럼 여겨질 정도로 늘 긍정적인 분이셨다. 하나의 조직이었기 때문에 갈등이나 갑작스런 문제들은 불가피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차분히 한해를 이끌어 주셨던 것 같다. 신뢰와 믿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개개인의 몫을 존중하고 최대한의 지원을 부여하되 지켜야 할 한계와 중심을 잘 잡아가셨다고 생각한다. 각양각색의 색을 가지고 있는, 올해 함께해 온 50+활동가 여러분께도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고마웠다고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분들은 또 왜 이리 재능과 끼가 많으신지.. 그분들 덕에 무사히 활동을 마친 것도 같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도봉구를 중심으로 기록을 시작한 것이 또 하나의 의미로 다가온다. 도봉구 토박이였지만 주로 외부에서만 일을 한 까닭에 본의 아니게 내 지역을 외면하고 만 상황이 되었었는데 올해는 그만큼 더 열심히 기록 활동을 했던 것 같다. 한편으로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아직은 도봉구 기록의 시작이기도 해서 새롭게 지역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을 잃지 않고 한해를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도 마음껏 칭찬을 해주고 싶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이 두 가지를 함께 짊어지고 있는 현재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어려운 과정이다. 지역 활동에 대한 뿌리가 없는 사람으로서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정도 그리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마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공감적인 연대가 있고, 자신을 꾸준히 발전시키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는 한 언젠가 소박한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현재도, 미래도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럴수록 힘을 얻는 이유는 주위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힘을 보태는 가족이 있기 때문이다.

“힘든 여정이여 내게로 오라!!” 이제는 모든 것을 품을 준비가 되어있으니..



부록

지역 내 마을일자리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우리 마을에는 이런 일자리가 있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일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역 일자리, 마을 일자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50+마을기록지원단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삶의 터전인
도봉구에는 어떠한 일자리들이 필요한지,
어떤 부분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위 조사한 내용은 추후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도봉구 마을일자리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 지역,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마을 일자리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설문 참여자 인적사항 (해당 사항에 V표 해주세요)			
성별	남(23) 여(42)	연령	10대(2) 20대(8) 30대(7) 40대(18) 50대(19) 60대 이상(11)
거주 지역	① 도봉동(6) ② 방학동(14) ③ 쌍문동(9) ④ 창동(31) ⑤ 기타(5)		

● 마을일자리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며 이 활동을 바탕으로 금전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것

● 질문 내용을 읽고 해당사항에 (○)해주시거나 표시해주시면 됩니다.

문 1. 귀하는 지역 내 마을일자리의 의미나 존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① 매우 높음(2) ② 높음(7)
③ 보통(30) ④ 낮음(15)
⑤ 매우 낮음(11)

문 2. 귀하는 도봉구 지역 내 마을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① 매우 높음(18) ② 높음(26)
③ 보통(13) ④ 낮음(5)
⑤ 매우 낮음(3)

문 3. 도봉구 지역 내에서 마을일자리가 생긴다면 어떤 영역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복수 선택 가능)

① 사회 이슈 분야(기후위기, 성차별 등)(8) ② 문화·예술 분야(26)
③ 교육 분야(주민·자치 역량강화)(18) ④ 지역 자원조사, 홍보·기록 분야(12)
⑤ 각종 서비스 분야(돌봄, 공유, 보건 등)(22) ⑥ 노동자·취약계층 지원 분야(9)
⑦ 기타(법률 자문(2), 각종 전문적인 정보 제공자)

문 4. 마을일자리를 만들 경우, 어떤 가치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복수 선택 가능)

① 질 좋은 일자리, 일거리 보장(인건비 등)(34) ② 일자리의 공공성, 공동체성(11)
③ 일거리에 대한 해결·실현 가능성(9)
④ 지역 내 실질적인 일자리에 대한 필요성(22)
⑤ 마을일자리의 지속가능성(31) ⑥ 기타( )

문 5. 마을일자리를 만들 경우 우리가 한번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복수 선택 가능)

① 근로자 선발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38)
② 기존 일자리와의 연계 혹은 중복되지 않도록(21)
③ 마을일자리의 전문성(25)
④ 지역 내 실질적인 수요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인지(25)
⑤ 기타( )

문 6. 위에서 답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적가치를 기반으로 마을일자리를 만든다면 어떤 일자리들이 중요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복수 선택 가능)

NO.	마을일자리 예시	체크
1	환경 조성 및 관리 담당자(기후위기, 그린환경 등)	19
2	사회적이슈에 대한 홍보 캠페인 진행 및 사례 관리자	8
3	마을 배움터(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담당자	31
4	마을 플랫폼(온·오프라인 / 공론장, 홈페이지, SNS 등) 설계 및 운영담당자	16
5	마을해결사(지역 문제·노동 분야·취약계층 지원 분야 등) 지원 담당자	14
6	생태 놀이터, 숲해설가 등 환경놀이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담당자	14
7	지역 역사, 문화 설명 해설가(마을해설사, 마을기록가 등)	17
8	지역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담당자	30
9	서로배움(타임뱅크)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담당자 ※서로배움 프로그램: 코로나 극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의 수요를 파악한 뒤 서로 매칭하여 일상적인 작은 부분부터 악기연주, 취미, 교육 등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19
기타	1. 정원사(마을 조경사), 학생 진로를 위한 멘토, 재무설계 지원	

뒷면 계속

문 7. 그 외에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면 좋을 우리동네 일자리 아이디어를 적어주세요

1.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2. 계약직 일자리라도 안정적인 기간으로 정해줬으면 좋겠다.
3. 활동에 대한 활동 경비를 합당하게 지급해줬으면 좋겠다.
4. 계약 기간과 고용체계에 있어 인수인계가 가능한 체계가 아니라고 판단됨.
   마을일자리의 연속성이나 인력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마을일자리를 구성했으면 함
5. 사회경험을 토대로 기존해왔던 일을 지역에 활용·적용할 수 있는 일자리 필요
   (경영 분야, 상담 및 컨설팅 분야 등)
6.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위생·보건·문화·예술 분야 부분 주민들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
7. 보편주의 복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별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교육역량강화, 생활에 보탬이 되어주는 일자리,
   노인 케어, 한부모 가족의 아이들을 위한 상담사 역할, 밤길 안전 지킴이 등)
8.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운영자
9. 게임 컨텐츠 프로그램 운영자
10. 청소년 진로 탐색 지원 담당자
11. 원예 복지사(2), 놀이 전문가
12. 법률(노동, 인사, 경영 등) 자문 관련 분야
13. 사회복지 설계사
14. 다양한 지원사업들에 대한 알리미,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들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겠음

2020
도봉구 마을활동 이야기

‘우리의 삶, 우리의 도봉을 기록하다’

발간일 : **2020년 12월**
발간처 : **도봉구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279-5
TEL. 02. 6952. 6954
E-mail. dbmasecenter@daum.net
Homepage. www.dbmasecneter.org
인터뷰 및 글 작성자 : **50+마을기록지원단 / 서병열, 우경림, 최선희, 정지실**
편집디자인 : **베스트기획 02. 581. 5061**

본 결과물은 2020 서울시 50+보람일자리사업「50+마을기록지원단」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으며,저작권은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울기록원, ”활동처(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있습니다.